



성도의 빛 12
1975

월 간 성도의 벗

제11권 제12호
1975년 12월호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 1975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장기구독료는 1200원 입니다. 특집을 제외한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 입니다. 장기 구독자의 주소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입니다. 구 주소와 신주소가 동시에 도착되지 않으면 주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항공 1년 구독료는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이 7불, 필리핀, 태국이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가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 아시아가 18불이며 선박은 어느 곳이나 3불입니다. 구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성도의 벗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순서

이야기 및 기사 페이지

- 1 아브라함의 모범 스펜서 더블류 킴블
- 6 마리아와 요셉 로버트 제이 매튜스
- 26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윌리엄 그랜트 뱅거티
- 27 자유 의지의 문제 로버트 디 테일러
- 28 간증에 닳을 내리고 조셉 비 워스런
- 29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애드니 와이 고마쯔

청소년 페이지

- 5 인가도 없는곳에
- 11 성탄절의 정신 토마스 에스 몬슨
- 21 물몬일지
- 21 12가지 성탄선물 조이스 백스트롬
- 경전과 아침식사 캐리 제이 코울맨
- 22 성탄절을 맞이한 즐거운 형제들 행크 차든
- 24 선교사의 어머니

어린이 페이지

- 13 예언자의 성탄절
- 14 룩키산의 주일학교
- 15 티롤의 노래
- 16 전세계의 교회 어린이에게 보내는 대관장단 메시지
- 18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 도로시 리언
- 20 심심풀이

등록번호 라-932

1976년 10월 4일

발행일 1975년 12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25호

발행인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번역 출판부

전화 : 74-6832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6 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6페이지



18페이지



아브라함 의 모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823년 9월 21일, 모로나이 천사는 뉴욕주 만체스터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유숙하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계시에서 천사는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요셉 스미스 2서: 38) 약 2,3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바 있는 이 예언은 1829년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안수로 벨기세베 신권을 받았을 때 성취되었으니,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고 사도 곧 내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 확인하게”(교성 27: 12)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교성 107: 3)이라 불리우는 벨기세베 신권의 회복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사는 인간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권이란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지상의 인간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신권은 주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려는 수단입니다. 이 신권의 권능이 없이는 인간은 미아가 되고 맙니다. 오직 이 권세를 통하여 인간은 교회의 모든 영적인 축복의 열쇠를 지닐 수 있어서 “천국의 비밀을 받아 알게 되는 특권을 가지며 여러 하늘이” 인간의 앞에 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교성 107: 18-19 참조) 신권은 또한 인간으로 하였고 새롭고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맺게 하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영원히 결합되게 해 줍니다. 신권은 또한 그의 자손에 대한 영원한 축복사가 되게 해 줍니다. 신권은 주님의 찬만하신 축복을 받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권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용기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교성 84: 33-34)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남자와 여자와 그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축복의 약속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나는 어떠한 축복이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세에 있을 때에 불사불멸의 육체를 받는 축복을 얻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축복은 우리 각자의 충실함에 따라 받게 됩니다. 신권으로 성임도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신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되는 것에도 당사자의 충실함에 따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충실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충실한 신권 소유자란 곧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성 84: 33, 44) 이러한 조건은 단지 순종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지 모임에 참석하고 과제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임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의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교성 121: 34)

그리스도는 충실한 모든 신권 소유자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십니다. 경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범을 따라 신권을 통해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예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한 분들 중의 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생은 가정의 참된 축복사가 되고자 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덕으로 인도되며 마음을 고상하게 갖도록 해 주는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그가 성신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애쓴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욱 큰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나는 선조의 축복과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직분에 안수 성임될 권리를 구하였더라. 나는 의를 좇는 자니, 위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고 의를 좇기에 더욱 큰 자가 되며 더욱 위대한 지식을 가지며 많은 민족의 조상과 평화의 왕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으므로, 나는 조상에게 속한 권능을 지닌 정당한 후사 곧 대제사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서 1: 2)

그의 선조는 “의...를 저버리고”(아브라함서 1: 5) 우상의 길을 따랐으나, 아브라함은 충실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깨닫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명령받은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교성 132: 37) 하는 순종의 태도로써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순종심과 그로 인한 축복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같이 지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족 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주여 하겠나이다. 그러나 우선 나의 가족을 다른 초원으로 옮겨 놓고 잠막을 고쳐야 하겠나이다. 주말에 또는 다음 주 초에, 또는 조금 있다가 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 “당일에”(창 17: 26) 행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감명적인 그의 순종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을 때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끔찍한 하나님의 명령을 잠시 지연시킬 수도, 심지어는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약속된 장소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교회 회원되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과 가정의 밤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직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시작하지요.” “예, 식량 비축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웃도 돕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좀 후에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미루는 동안 추수는 지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야 할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뜻에 곧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중요한 면에서도 또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대한 신앙은 그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실로 그는 주와 “얼굴을 마주 대고”(아브라함서 3: 11)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시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의로운 부모는 그들의 가족을 인도하고, 또한 그들의 다른 책임을 완수하도록 도움이 되는 계시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함으로써 주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의 생활을 정돈함으로써 그와 같은 계시를 얻을 수 있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사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책임 중에서도 그의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가 받은 청지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을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창 18: 19) 소책자, “가장 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이 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지도자는 세상의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반려자의 도움과 조인과 격려를 받으면서 가정을 관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치와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식탁에서나 가족 기도를 할 때에도 관리자가 됩니다. 가정의 밤도 이끌어 가며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녀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칩니다. 가정 생활 전반에 관하여 그 방향

을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가장으로서의 축복을 가족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가정에서의 규칙과 계획을 세웁니다. 가정의 지도자로서 단합되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희생도 감수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모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노력함으로써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또한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임으로써 여러분은 결코 마르지 않을 영적인 힘을 저축하는 저수지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자녀를 위한 이와 같은 저수지를 짓지는 않고 단지 다른 곳에서 물이 흘러 들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나 신학 연구원 중등부 조직 등을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지어진 댐은 틈이 갈라진 바위로 지은 댐과 같아서 큰 홍수가 나면 곧 허물어지고 맙니다. 교회의 보조 조직은 매우 중요해서 보조 조직이 제공해 주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조 조직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보조 조직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모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매우 견실한 영적인 저수지를 지었습니다. 그 저수지는 결코 마르지 않는 저수지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이삭이 위대한 축복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이에 관하여 우리에게 귀한 충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슴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영과 능력으로... 가르치셔서 자녀가 이를 행사하여 더욱 강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이 열의를 갖고 있으며 여러분의 언행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자녀 훈육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모범으로 보이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인도하는 교사 이외에도 모범이나 학교나 조직이 가정 교육의 보조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복음 교리, 302페이지) 우리 모두 이 권고에 따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기뻐 웃으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의 참된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비단 우리 가정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대한 우리의 책임 중 하나가 바로 선교 사업입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의 모범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하란 땅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역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리니”(아브라함서 2: 6) 이미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 있는 아브라함은 그 부름을 받아 새로운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려 나아 갔으며, 그는 그의 가족과 “우리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서 2: 15)

주님께서 4천년 전 그의 종 아브라함을 불러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명하셨듯이, 주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아들들을 복음 선교사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복음을 나누고자 노력한 자들은 지상의 형제 자매들과 나눌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을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들인 수고는 너무도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지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단지 음성으로 전하는 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생활하여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가 낳는 화평을 몸소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 화평을 지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의의 표본이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형제들간에서 화평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말자” (창 13:8) 일단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님으로써 그 화평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화평은 오직 온전함을 통하여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는 어떠한 희생물도 하지 되더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한 행동 규범을 지키기로 약속하고는 그것을 어긴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숙일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학생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태만과 합리화로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전력을 다하여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비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 21-23)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주님과 맺은 성약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왕의 호의를 받아들여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맺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와 같이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진실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소유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쳤던 일이 자주 인용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의로울 수 있었던 여건이 여러분이 의로울 수 있는 여건보다 쉬운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심으로 아브라함은 특별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위대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증

드리노니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용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승영에 들어가 자기의 보좌에 앉았느니라”(교성 132: 29) 이러한 승영의 축복은 오직 총관리 역원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정원회 회장이나 감독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축복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진실로 성신을 생활 안에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세우신 모범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아브라함이 지니셨던 온전함, 순종심, 계시, 신앙, 봉사 정신을 지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들이 아브라함이 구하였던 축복을 구한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같은 계시, 성약, 약속,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되시는 여러분은...가족에 대해...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질서와 순종과 회생을 가르치는 분위기를 가정 안에 이룩하였다고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들려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들이 보호와 안전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과 연정과 온정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책자,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에서 인용함.)

스태이크 부장들과 벨기세메 신권 정원회 회장들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가정들과 정원회 회원들로 하여금 가장으로서의 부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영감을 주고 훈련시키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권고하노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은 친구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절과 정의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되시는 자매님께 권고하노니, 여러분은 의로움 가운데에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도록 용기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어지기 전에 지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일, 내주, 내년엔 따라야 할 행동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은, 아브라함과 같이 되고, 주님을 따르고,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며,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는 따르지 못했던 계명을 순종하는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할 때입니다. 매주 성찬식과 신권회에 참석하겠다고,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모든 일에서 교회 총관리 역원을 지지하겠다고, 교회 프로그램대로 행하겠다고, 자주 신전을 방문하겠다고 (또는 신전이 가까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가능한 한 자주), 모든 보조 조직에서 봉사하겠다고, 바람직하고 건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신권에 성임될 권리를 갈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귀환 선교사 모든 독신 남녀, 모든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아브라함의 사업을 행하라.” (교성 132: 32)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더욱 큰 행복과 화평과 위안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게 (눅 2: 52 참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가족에게 이생애뿐 아니라 영원한 생애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게 해 줄 것입니다.



인가도 없는곳에

아직 지평선이 어둠에 묻혀 있는 새벽녘, 기차는 물을 갈아 넣기 위하여 남부 멕시코의 어느 철도 대피소에 멈췄다. 마을이라곤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오직 보이는 것은 회미한 산의 능선과 정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기차가 다시 증기를 내뿜으면서 떠나려 할 때, 여객칸 긴의자에 앉아 있던 멕시코 청년은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동반자 “그링고”(미국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르면서 말했다.

“가방 드세요. 내려야 해요.”

아침 잠에서 덜 깨 동반자의 우물거리는 반대를 무릅쓰고 멕시코 청년은 새벽 4시의 차가운 대기 속으로 그를 끌고 내렸다. 기차는 요란한 기계 소리를 내고는 선로를 미끌어져 갔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동반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 한 밤중에 인가도 없는 곳에는 왜 내리는 겁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기차도 오지 않을텐데!”

“저도 알아요” 젊은 멕시코 청년이 대답했다. “하지만 성령이 제게 내리

라고 말해 줘서 내렸읍니다.” 그의 동반자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았다. 그런 식의 동기에는 더 뭐라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교부 산하의 푸에블라 지역 책임자인 파라 장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다. 그가 주님과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자, 이제 여기 내렸으니”, 미국인 동반자는 태연한 듯이 말했다. “이젠 어떻게 한다?” 파라 장로는 어둠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걸어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산등성을 비틀거리면서 넘어갔다. 새벽의 미명이 깃들면서 그들은 점점이 곱친 산들을 눈앞에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걸어서 산을 넘었다. 70리길을 걸어 가자 마침내 마을 하나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조그만 언덕으로 올라 갔다. 그들은 찬송가를 꺼내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를 부르고는 또 다른 찬송을 계속 불렀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여 언덕으로 올라 올 때까지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

모든 사람들이 두 선교사의 주변에 모이자, 두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만나질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는 '근처의 작은 냇가를 막아 물을 고이게 하여 그곳에서 8세 이상되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새로운 작은 지부의 지부장으로 장로 한 사람을 선임하고는 다음 기차를 타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파라 장로는 최근에 남부 멕시코로 돌아가, 현재 멕시코 베이라 크루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 선교부 산하의 회원의 활동은 매우 높으며 이 선교부는 활발한 선교사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다.

산중에 있는 작은 마을은 이제 약 200명의 회원을 가진 지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역 내의 복음 선교사를 갖고 있으며, 예배당을 짓기를 바라고 있다.

인가도 없는 곳에서 새벽 4시에 기차에서 갑자기 뛰어 내린 한 물몬 장로의 신앙은 그들에게 이처럼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다.



마리아와 요셉

다윗의 상속인, 은혜를 받은 자, 우리 구주의 보호자

로버트 매튜스 글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에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으나,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생애와 특별한 몇 가지 사건을 알아야 하겠다.

우선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이며,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의 육신의 부모이며 보호자라는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고, 육신으로는 독생자이시며 경전의 주제이다. 아담을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와 그의 사명을 증거하였다. 그는 전세에서 여호와이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인류의 구세주로 택함을 받은 자였다.

예수는 구세주로서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셨다. 그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친히 고대 축복사들과 예언자들을 방문하여 복음의 성약을 맺으셨다. 그분은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니파이, 엘마, 기타 여러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은 분이였다. 그분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모든 지혜와 명철을 지니시고, 친절과 자비를 갖추신 분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 세상의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전세에서 인간을 구속하는 사명에 택함을 받았던 것 처럼 그의 예언자들도 이 지상에서 행하게 될 사명에 그들의 충실함에 따라 미리 예입되었다. (아브라함서 3:22-23; 엘 13:2-10 참조)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이 의로움 안에서 가르침을 처음으로 받고, 예수의 추종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전세에서 이루어졌다.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성임되었고, 다른 이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예언자의 아버지로, 아내로, 어머니로 예입되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이 최초의 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의 지상에서의 보호자로서 택함을 받았었다고 믿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위대하신 여호와를 이 지상에 오게 하는 특권과 책임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여호와와는 살과 뼈의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을 하면서 인류를 구속하는 데 사명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예수의 탄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형적인 사건도 아니고, 구원의 계획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사건도 아니었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마리아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탄생

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인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다. 오직 주님께서 이 지상에 태어나 죄없는 생활을 하시며,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의 피로 대속하시고, 돌아가셔서, 육신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심으로써만 구속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엘 34:8-16; 모사 7:27 참조) 다른 어떤 방법도 영원한 정의와 공평을 가져 오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절차, 이와 같은 구속주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비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진실로 저와 같이...” (니이 9:9) 될 것이다.

마리아에 대한 암시적인 경전 성구는 모세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법한 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모세서 4:21; 창 3:15 참조)

약 주전 700년에 이사야는 구세주의 지상의 어머니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신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마 1:22-23 참조)

니파이인은 이 사실을 보다 쉬운 말로 설명하였다. 예수가 탄생하기 약 600년 전,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나사렛 성도 보았으며 나사렛 성 안에 한 처녀를 보았으니 지극히 희고 아름다움더라.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한 천사가 내 앞에 내려와 서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보는 처녀는 육체를 입고 오실 하나님 아들의 육체의 어머니시니라.

“눈을 들어 그 처녀를 보매, 어린 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양,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일서 11:13-14, 18, 20-21)

그후, 구세주가 탄생하시기 124년 전 베냐민 왕은 천사가 그를 방문했다고 설명하면서, 구속주는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이르리”(모사 3:8)라고 설명하였다.

그후, 주님이 탄생하시기 약 80년 전, 엘마는 백성들에게 이같이 가르쳤다. “보라, 그는 우리 선조의 땅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뿔뿔히 청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엘 7:10)

마리아가 전세에서 이미 태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마리아에 관한 자세한 예언의 말씀이 있을 수 없다.

주님의 육신의 부모로 태함을 받는 것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보좌를 상속받을 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문자 그대로 유대 법에 따라 유대의 왕이 되어야 했다. 이사야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6-7, 이사야 11:1, 교성 113:1-2 참조)

예수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필연적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리아는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들 예수에게 이를 물려 줄 수 있었다.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경전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예수는 자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으며, 예수는 이러한 명칭을 거부하지 않았다.

바울은 예수가 왕족의 혈통을 물려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로마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오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롬 1:3)고 썼다. 또한 디모테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딤후 2:8, 행 13:22-23, 2:30 참조)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서에 나와 있다. 신약에는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며 “다윗의 집 족속”(눅 2:4, 눅 1:27, 마 1:16, 20, 눅 3, 23-31 참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요셉의 피를 받지 않는다고 그를 통하여 법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계승받게 된 것이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므로 왕족인 다윗의 집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의 왕, 헤롯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다.

“만일 유다가 독립된 국가를 갖고 있어서 합법적인 왕가의 통치를 받게 되었었다면, 목수 요셉은 왕이 되었었을 것이고, 그의 합법적인 계승자, 나사렛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되었었을 것이다.”(예수 그리스도, 87페이지)

물론, 마리아는 태어나면서 전세에서의 모든 일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었다. 그러나 독생자의

강림이 가까와 오면서, 마리아는 적시, 적소에서 그녀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혈통으로 태어났던 것이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했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누가복음 1:28-33)

며칠 후, 마리아는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알게 된 여인)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리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누가복음 1:46-49, 54-55)

마리아의 이와 같은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녀의 지식과 그녀의 성품을 말해 준다. “미천함”이라고 한 말은 아마도 마리아의 누추한 생활 환경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이스라엘 왕족의 상속인으로 태어났으나, 그러한 명예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지 못했으며, 요셉이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했다.

비록 마리아가 자신의 높은 부름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고 있었으나, 우리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많은 사실을 증거해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리아의 훌륭한 영성과 의로움을 지닌 천성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구약의 지식을 되새겼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성약과 약속을 기억했다. 마리아는 의심할 나위 없이 신중한 성격을 지닌 여자였으며, 그와 같은 부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여인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을 순종한 여인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성신이 함께 하는 가운데서 마음과 성품을 닦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기에 때문에 마리아도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영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의로운 영을 독생자로 택하셨으므로, 그의 영의 딸들 중에서 가장 합당하고 영적인 영을 영원하신 아들의 어머니로 택하셨다는 결론을 우리는 분명하게 내릴 수 있다”(브르스 알 맥콩키, 신약 교리 주해서, 북크래프트사, 1965년, 제1권, 85페이지)

이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외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 마리아의 영적인 준비 기간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외전에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다른 영적인 시련을 본 사실에 대하여 언급된 바가 많다. (잃어버린 성경, 제1장과 4-9장, 뉴욕, 더 월드 출판사, 1926년. 또한 “바돌로뮤의 복음” 제2부 신약 외전, 엠 알 제임스 번역, 옥스포드, 클라렌드 출판사, 1969년, 170-172페이지 참조) 이러한 시련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의 내용은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 동안 영적인 준비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정확할 것이다.

예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도 역시 다른 어린 아이들처럼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보살핌을 받아야 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전세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게 되는 장막을 통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었다. 누가는 예수가 어려서 접차로 지혜가 커갔다고 말하였으며 (눅 2:52), 교리와 성약에는 예수가 육체로써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으시니라” (교성 93:12)고 기록되어 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리워지는 망각의 장막이 그에게도 가리워졌으므로, 그는 전세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111-112페이지)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도 그의 저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느냐?” (데저렛 뉴스사, 1947년, 9-10, 12, 74, 81 페이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요인은 오직 마리아와 요셉에게 더욱 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의 성품과 태도에 미치는 어머니의 강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돌볼 여인으로 마리아를 신뢰하고 아들을 보내셨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기 위하여 마리아는 전생에서 영을 훈련한 것은 물론,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자신을 준비해야만 했다. 마리아는 비록 전세에서 예임되었으나 만일 마리아가 이 지상에서 순결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도, 해산할 수도 없었다.

요셉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택하여 예수의 지상의 부모가 되게 하셨겠는가? 경전에는 직접적인 묘사가 극히 적으나,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다. 가정에서 가장 이 자녀에게 훈계와 모범으로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며 자녀의 상담자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을 매우 신중히 고려하여 택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경전에 나와 있다. 그는 밤에 꿈속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기에 합당한 자였고(마 1:2, 2:13, 19:23 참

조), 그는 마리아를 난처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으며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마 1:9)였다. 또한 우리는 그가 맡은 임무에 적합한 도덕성, 지식, 사회적인 자격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을 잘 지켰다. 모세의 율법에는 요구하는 의식이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여드레째 되는 날에 주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성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해야 하는 의식도 있었다. 또한 아들을 낳은 지 40일째 되는 날(팔린 경우에는 80일), 어머니는 어린 양 한 마리나 비둘기 두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또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첫 아들은 주님께 성별되어 헌납되어야 하는데, 제물로서가 아니라 봉사로서 헌납되어야 했다. (출 13:1-2, 11-15 참조). 또한 모든 사람이 자주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도 율법의 하나였다. (신 12:5-7, 11-14)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모든 율법대로 행하였다고 신약은 말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가 난 지 여드레 되는 날 할례를 하였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눅 2:22)

마리아가 어린 양 대신 비둘기 두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으로 우리는 마리아의 가난한 생활 형편을 알 수 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눅 2:41)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지상의 부모님이 지니고 계신 순종심과 영적인 성품을 알 수 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성전에서 만난 것은 유월절이었다. 이 사람은 성신의 권능으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는 마리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 내려 함이니라”(눅 2:34-35) 마리아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실제로 열구리에 창이 고통을 봄으로써, 이러한 시므온의 말이 성취되었던 때



전 후에 이 말에 대하여 여러 번 생각해 보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단 하루 단 한 가지 사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마리아는 특별한 영의 소유자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의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시지는 않으셨다. 마리아는 지상 생활의 특징인 고생, 낙담, 질고를 당하면서 생활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때는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유대는 로마의 치하에 놓여 있었으며, 통치자 헤롯 왕은 거칠고 잔악한 군주였다. 유대인들은 엄격한 형식주의와 영적인 결여로 배도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유대인…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관리하며 또한 가증”(나이 10 : 3-5)한 자들이었다.

마리아가 요셉의 시중과 보호를 받으면서, 첫 아들을 낳아 말 구유에 놓은 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시기였다. 아기 예수의 거룩함을 축복으로 받은 이 겸손한 가정은 당시 거만하고 완고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선생, 그리고 서기관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영성이 결핍된 상태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대조를 미리 아시고 메시아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사 53 : 2) 같이 장성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는 예수의 가정 생활과 유년기의 시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암시되어 있다. 요셉이 목수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일을 해 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막 6 : 3 참조) 예수의 가정의 분위기는 모세 법에서 주님이 명하신 바와 같이 순종의 분위기였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으로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손으로 구해졌던 과거를 처음으로 배운 곳이 가정이었으며, 경전에 기록된 것과 같이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배운 곳도 의심할 나위 없이 가정이었다. 부모가 매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유대교 회당에 참석하는 것, 명절을 지키는 것,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준비와 여행하면서 하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예수에게 강한 교훈과 모범이 되었다.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 되는지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신약에는 형제 4명의 이름과 누이 몇 명의 이름이 나와 있다. 회랍 원전이 이 문제에 대하여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마태복음에 “그 누이들은 다”(회랍어 : 판타이)(마 13 : 56)라고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누이가 두 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회랍 원전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하이 아넬피아”는 세 명 이상의 누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누이가 두 명뿐이었다면 구태여 “판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암포테라이”(두 사람이라는 뜻)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적어도 아들 5(예수도 포함)명과 딸 셋—도합 자녀가 여덟 명은 있었을 것이다.

이 다른 자녀들의 혈통에 관하여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마리아의 자녀가 전혀

아니고 요셉의 전처에서 낳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셉은 막내일 것이고 전혀 혈육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요셉은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온다.

또 다른 한 가지 견해는 이 자녀들이 모두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라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맏아들로서 다른 동생들은 이복 동생이다. 이 두 가지 의견에는 저마다 옹호자가 있고 경전에서도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서가 있다. 그러나 예수는 마리아의 “맏아들”이라는 말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자녀들은 그후에 마리아가 낳은 자녀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눅 2 : 7 참조) 자녀들이 모두 마리아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전처의 아들이 있었다면 다윗 왕의 보좌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전처의 아들이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마리아는 여러 해 동안 과부로 살았을 수가 있다. 요셉에 관하여 언급된 마지막 말은 그가 12세되던 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기록이다. 예수가 30세 때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갔을 때 마리아와 예수가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말이 있으나 요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요 2 : 1-10 참조) 마지막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요셉에 관한 기록은 역시 없었다. 그때 예수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모친을 잘 돌보도록 부탁했었다. (요 19 : 25-27 참조) 이러한 예로 미루어 보아 요셉은 예수가 12세였을 때부터 성역을 베풀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 (마 12 : 46 참조)

위전에서는 요셉의 죽음과 예수와 마리아가 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일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극적으로 기록하였다.

마리아가 여러 자녀를 두고 홀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일리가 있다. 만일 이 가정이 정확한 것이라면, 예수는 장남으로서 홀몸이 되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특히 과부와 고아에게 마음을 쏟았던 것을 의미 있게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시 68 : 5, 146 : 9 참조, 야 1 : 27 참조)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지 않는 않지만 마리아를 높이 존중한다.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귀하고 훌륭한 여인이다. 모든 어머니들 중에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자이다. 마리아는 전형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모범이 되는 자이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천사의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제집 중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눅 1 : 46-48)

로버트 제이 매튜스 박사는 브리검 영 대학교 고대 경전학과 부교수이며, 교회 성인 협의 회의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젊은 장로로서 나는 병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기 위하여 초등학교 병원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병원에 들어 서자,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은 성탄절 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 미소로 인사하는 복도를 지나 들어갔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어린이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들이 팔이나 다리에 기부스를 했다는 사실, 또는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듯하였습니다.

나는 한 어린 소년의 침대 곁으로 다가 갔습니다. 그는 내게 “아버지는 누구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버씨, 제게 축복해 주시겠어요?”라고 소년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소년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침대 곁을 떠나려 돌아 서자 소년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발자국 걸어 나갔을 때, “몬슨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소년의 소리에 뒤를 돌아 보았더니 소년은, “성탄절을 즐

겁게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온통 밝은 미소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성탄절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내가 모든 젊은이들이 마음과 생활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며, 단지 성탄 절기 뿐만 아니라 항상 지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정신을 지닌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닌다는 것이니, 이는 성탄절의 정신이 곧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정신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관찰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성탄절 정신입니다. 나는 가난한 가정에 찾아 들어 가 창백한 어린이의 눈을 즐거움으로 크게 뜨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재산을 움켜 쥐고 있는 구두쇠 손을 펴게 하여, 구두쇠의 영혼에 밝은 점을 그려 넣게 합니다.

“나는 노인에게 들어 가서 그들이 즐거움에 옛날을 회상하게

성탄절

의 정신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해 줍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모험을 가져다 주고 마술로 짜여진 꿈을 밝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줄 물건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어두운 층계를 올라 가게 하여, 세상에 숨어 있는 신한 행위에 놀라도록 만듭니다.

“나는 탕자로 하여금 그의 방탕하고 낭비적인 길에서 잠시 멈추어,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표적을 주어서 그들이 슬픔의 주름을 찌고 기쁜 눈물을 흘리도록 해 줍니다.

“나는 어두운 감방으로 들어 가, 죄수들로 하여금 앞으로 올 보다 좋은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수천 가지 방법으로 나는 이 매마른 세상이 하나님께로 일들을 돌리고 잠시 동안 비천하고 가치없는 모든 것을 잊도록 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작자 미상)

바로 이것이 내가 간구하는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일 년 중 이 절기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대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성탄절, 곧 첫번째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이사야의 다음 말을 읽으면서 그때를 다시 상기해 보기로 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또 이사야는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고...그 이름은...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이사야 9:6)

미대륙의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러 멀지 아니하여, ...전능하신 주님께서...권세로써...흙으로 지어진 장막에 거하시며...

“...그는 시험을 받으시며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모사이야서 3:5, 7-8)

그리하여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같이 말했던 바로 그날 밤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베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목자들은 즉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려고 구유로 찾아 갔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도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태복음 2:2, 10-11)

그후부터 성탄절을 축하할 때면 언제나 선물을 주는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 귀한 절기에 어떤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시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 각자가 모두 순종의 선물을 드림으로써 진실로 주 여호와를 온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다면,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탐욕이나 분쟁을 없애라고 권고하실 것입니다. 니파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다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돋움...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니파이삼서 11:28-30)

청소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다툼이나 우리의 생애 오점을 남게 하는 어떠한 정신이라도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탄 절기를 맞아 우리가 모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부모님을 잊지 않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탄절 선물이 또 있었습니까?

언젠가,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살고 있던 아버지 한 분이 내게 다가 오더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의 편지를 내게 자랑스럽게 내 보여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올 성탄절 선물로 이와 같이 특별하고도 오래 잊혀질 수 없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선물을 여러분은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서 제게 해 주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해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는 장로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었던 것을 감사드리고 싶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부모님의 생애와 우리 형제들의 생활 규범으로 삼으셨던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사랑을 보이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올바른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제게 강요하시기 보다는 제게 모범을 보여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훌륭한 간증을 갖고 계시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저도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이곳에서 갖게 된 몇 가지 체험은 저의 간증을 더욱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뻐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스런 아들, 데이비드 올립”

아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로 감사의 선물보다 더 훌륭한 선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부모님께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이웃 등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회생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 주고, 인생의 합정을 없애 줄 수 있다면 그들이 받는 혜택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불을 붙여 줄 수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매일 매일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능력을 알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주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할 마음이 있고, 용기를 북돋울 생활이 있으며, 그들에게 부어 줄 축복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주님의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예언자 요셉 스미스 1805—1844

예언자의 성탄절

1805년, 버몬트주 채론읍에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요셉 스미스는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랑스럽고 충실한 가족의 세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갖은 역경과 슬픔 중에서도 이 가족은 함께 하는 즐거움과 행복한 경험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가졌을 때, 요셉의 사랑은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는 항상 타인을 위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정은 ‘물몬주의’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의 하나입니다.”

예언자 요셉은 늘 친구들을 좋아하였으며, 항상 그의 집에서 맞아 들이기를 즐겨했습니다. 그의 일지에는 특별하게 즐거웠던 1843년의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

다.

“새벽 한 시경, 영국 자매인 레티스 러쉬튼 자매의 음성에 눈을 떴다. 자매님은 세 아들과 자부들, 두 딸과 사위,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 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노래 소리는 나의 전신에 기쁨의 전율을 느끼게 해 주었다. 나의 모든 가족과 또 나의 집에 유숙하고 있던 방문객들이 모두 잠에서 깨었다. 나는 그들의 방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다. 그들은 나의 형 하이람의 집에도 방문하여 형님이 잠에서 깨도록 하였다.

“두 시경(오후) 약 50쌍의 부부가 나의 식탁에 둘러 앉았다.

“커다란 파티가 나의 집에서 베풀어졌다. 저녁은 음악과 춤[등등]으로 지냈다. 참으로 재미있고 호젓한 광경이었다.”





록키산의 주일학교



가족의 음식과 의복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시간을 제외하고는 리처드는 단칸방 집에 건물을 증축하여 집회소로 사용하게 하려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밀크리크 캐년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통나무를 굴러 제재소로 가져다가 톱질을 해서 재목을 만들었습니다. 레드 버트 캐년의 채석장에서부터 사암을 캐내어 기초와 문지방에 놓았습니다. 도시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벽돌 공장에서 이도우비 벽돌(햇볕에 말려서 만든 벽돌)을 구했습니다.

길이 6미터, 너비 5.4미터 되는 주일학교 교실의 벽 안쪽은 회반죽을 만들어 발랐고 밖에는 이도우비 벽돌을 쌓았습니다. 바닥은 널빤지를 깔았으며, 지붕은 통나무를 흠으로 이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 앞면에 창문 두 개를 만들었으며, 남쪽으로 창문과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커다란 벽난로가 있었고 널빤지로 긴의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벨런타인 자매는 주일학교를 위한 음악을 선택하고, 공과에 대해 제언하며 교실을 아늑한 분위기로 유지하도록 모든 면에서 도왔습니다.

리처드는 뜰에 양버들을 심어 그늘을 지게 했고 아름다운 관목과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또한 집 주변에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턱수염이 더부룩한 스코틀랜드 형제는 이웃 아이들을 그의 새로 지은 집으로 초대하여 주일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1849년 12월 9일, 일요일 아침 8시, 8시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약 30명은 신에 붙은 눈을 털고는 따뜻한 불과 리처드 벨런타인 형제가 따뜻하게 맞아 주는 주일학교로 들어 갔습니다. 리처드 벨런타인은 빛나는 눈으로 개회를 선언하였습니다. 개회 찬송이 끝난 후 그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린이에게 가르칠 곳으로 헌납하였습니다.

이번 12월은 1849년 12월 9일, 대솔트레이크 계곡에서 가졌던 첫번째 주일학교 모임의 126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약 30명의 소년 소녀들이 리처드 벨런타인의 집에 모여서 주일학교를 가졌던 그 즐거웠던 안식일이후로 수많은 말일성도들은 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우박은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첫번으로 수확하게 되었던 리처드 벨런타인의 밀밭을 못쓰게 만들어, 겨우 가을에 금싸라기 같은 밀을 조금 거두어 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아내 헨다와 아기와 함께 곡식을 심기에는 너무 늦게 이곳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밖에 거두지 못한 밀을 세어 가면서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낙담과 실의에 빠져 있는 리처드에게 이상하리 만큼 강한 느낌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로 개종하였던 조국 스코틀랜드에서의 시절이 회상되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파운 마을 거리에서 누추한 옷을 입고 일요일에도 뛰어 놀던 어린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리처드는 이 어린 소년 소녀들을 위하여 주일학교를 조직해

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곳 새록은 땅, 경작하기 어려운 황무지에서, 리처드는 개척자 어린이들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사랑하였으며, 또한 소년 소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리처드 벨런타인은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복음이란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도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배울 특권을 받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그의 감독에게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감독과 교회 총관리 역원은 모두 그의 계획을 적극 추진시켰습니다. 두 대의 포장 마차에 모든 짐을 싣고는 리처드는 가족과 함께 울드 포트를 떠나 서쪽으로 한 구획, 남쪽으로 세 구획 떨어진 솔트레이크 신전 부지로 옮겨 갔습니다. 그들은 “여름 부엌”으로 사용될 방 하나를 짓고 포장 마차 한 대에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포장 마차 한 대는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티롤의 노래

교회 울건 파이프가 부러졌다! 성탄절이 곧 다가 오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 전야 예배의 음악을 울건 대신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오베른돌프 마을은 눈속에 깊이 묻혀 있었다. 어린 아기를 출산한 나뭇꾼의 아내를 방문하기 위하여 조셉 모어 신부님이 눈길을 파헤쳐 갈 때, 차디 찬 대기를 통해서 겨울밤의 별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빛났다. 그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신부는 첫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지켜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정경을 보고 있던 젊은 신부의 머리 속에는 옛날 베들레헴 마굿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떠올랐다.

흰 눈으로 덮인 적막한 숲길을 지나 마을로 향해 걸어 오는 모어 신부의 머리 속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가사로 노래가 이어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 가사는 계속 그의 머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가 생각을 정리하여 종이에 적어 놓고 잠자리에 든 때는 거의 동이 틀 녘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그 가사를 곡에 붙여야겠다고 걱정했다. 그에게는 학교 교사이며 교회에서 울건을 연주하는 프란츠 그루버라 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 시를 갖고 부리나케 그루버의 집으로 달

러 갔다. 프란츠는 친구가 지은 시에 기타 반주에 맞추어 2부로 부를 수 있는 곡을 지었다.

1818년 성탄절 전야, 눈에 덮인 오베른돌프 마을에서 가진 예배에서 프란츠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프란츠와 모어 신부가 최초로 “고요한 밤”을 불렀다. 바로 이 곡이 오늘날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인 것이다.

처음에는 “티롤의 노래”로 알려졌던 이 곡은 4명의 어린이—자매 2명, 형제 2명—가 라이프찌히에 가서 아름답게 이 노래를 불러, 그곳에 있던 작센 왕국의 음악 책임자로부터 음악회장에서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음으로써 세상에 널리 소개되게 된 것이었다.

1850년, 베르린 임페리얼 교회 합창단이 프레데릭 윌리엄 4세를 위하여 이 노래를 불렀는데, 프레데릭 대왕은 이 노래에 크게 감명을 받아 이 곡의 작곡자와 작사자를 직접 만나고 싶어했다. 그당시 모어 신부는 유명을 달리 하고 있었으나, 프란츠 그루버는 그의 음악에 대한 표창을 받았다. 그의 기타는 현재 험베인에 있는 뮌시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57년이 지난 올 성탄절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기억하여 세계 각 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오스트리아, 오베른돌프에 살았던 두 분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고요한 밤”을 부를 것이다.



기도 합니다. 약 2천년 전 베들레헴의 말기유에서 태어 나신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퍼스한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불친절한 행위를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성탄절기에 기념하는 것이며, 이 예수님은 곧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로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모든 어린이가 소망과 신앙과 즐거움과 깨끗하고 맑은 청진을 가짐으로써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길을 밝혀 주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선물은, 모든 인간—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상에 있게 될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기꺼이 바치신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성탄절과 그날에 있는 모든 즐거운 일들이 지나고, 장난감들이나 모든 놀이의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행복을 안겨 줄 수 있는 선물—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은 선물은 순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이 느끼시는 행복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훌륭한 선물인 것입니다.

올바르게 생활하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보임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영원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부모, 형제,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매우 소중한 보배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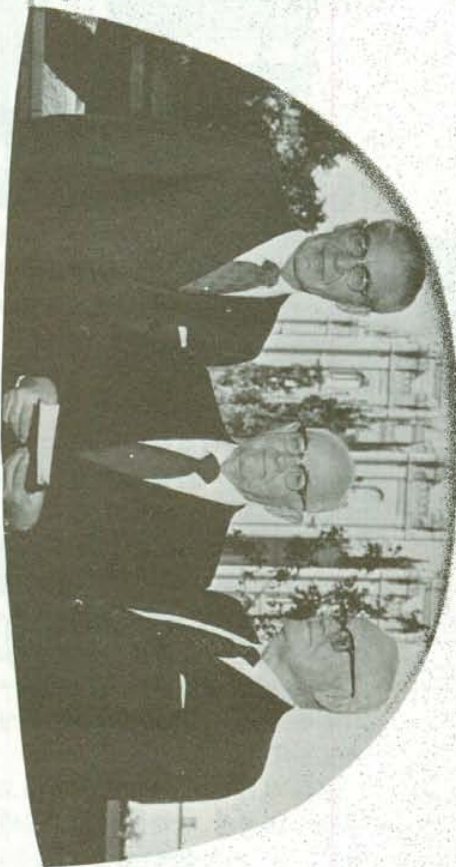
전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년 소녀 여러분에게 진실로 축복을 내리고, 또한 어린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실로 자신을 줌으로써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받는 일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일 년 내내 밝게 빛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사랑의 선물일 것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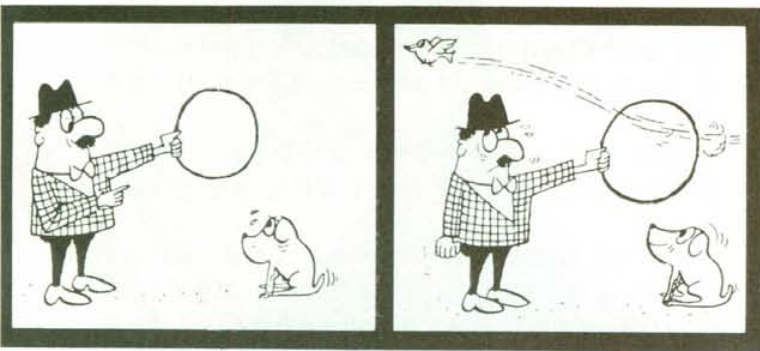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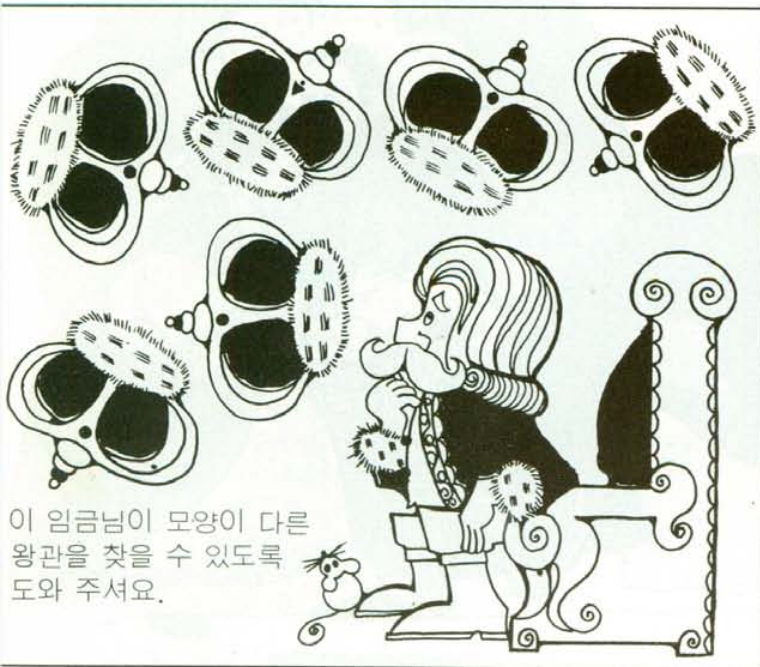


전 세계의 교회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대관장단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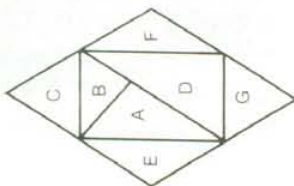
성탄절은 일 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 때가 되면 지나간 성탄절기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리한 선물의 모범을 보이셨으니, 곧 “하나님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요 3:16)신



심심풀이



마름모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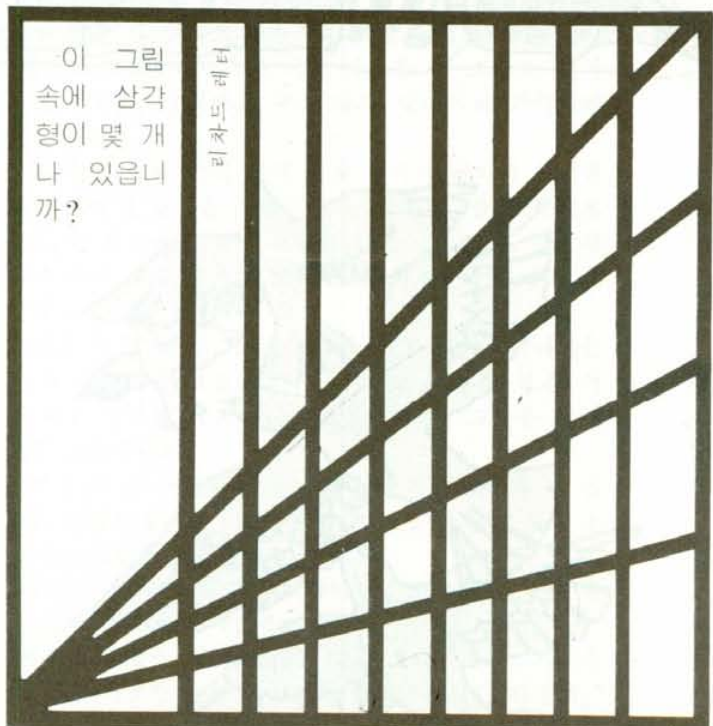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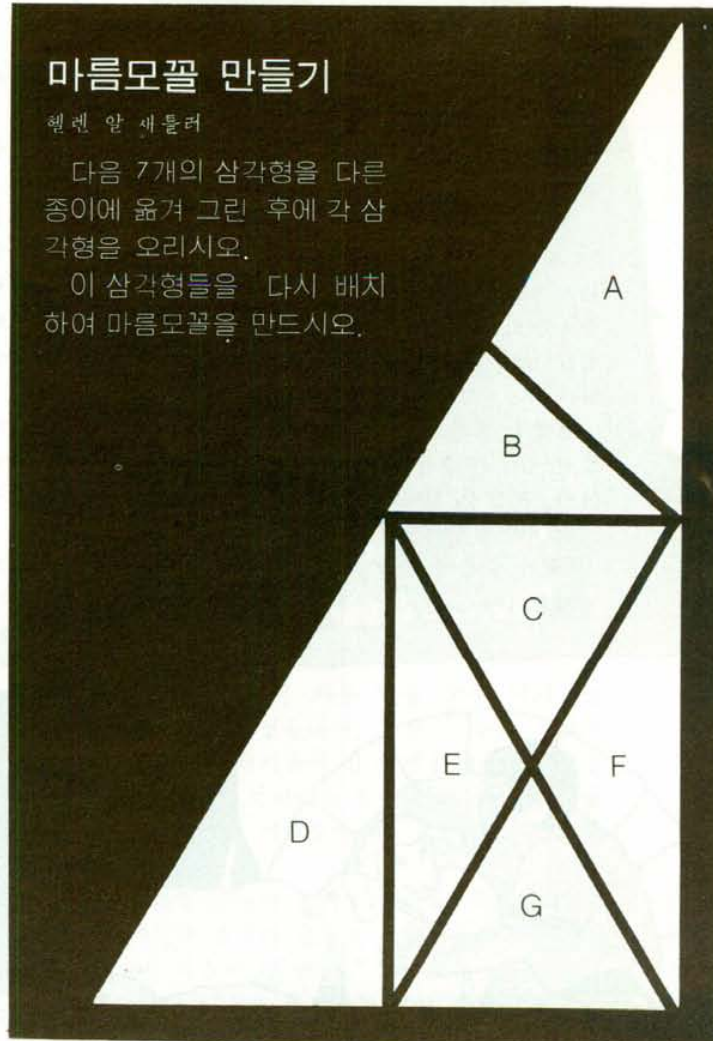


마름모꼴 만들기

헬렌 알 새틀러

다음 7개의 삼각형을 다른 종이에 옮겨 그린 후에 각 삼각형을 오리시오.

이 삼각형들을 다시 배치하여 마름모꼴을 만드시오.



물몬일지

12 가지 성탄 선물

조이스 백스트롬 글

성탄절과 외로움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나 20년 전에 개종한 헝가리인 엘리자벳 블럼버그 자매에게는 정말 성탄절이 외롭고 쓸쓸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부다페스트에 있었을 때나 캐나다에 있었을 때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었다. 그러나 이제 엘리자벳은 외로웠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바쁜 절기였다.

블럼버그 자매는 후회가 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변경할 수도 없게 된 모든 환경, 즉 나이가 들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시력이 약해지고, 남편을 여의고, 영어를 더듬고 더우기, 비회원인 딸과 다른 가족들과 복음을 나눌 수 없는 사실을 여느 때와도 마찬가지로 조용하게 받아들였다.

1973년에도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 오고 있었다. 12월 14일,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 보니 문 앞에는 예쁜 포장지로 싼 선물과 카드가 놓여 있는 것이었다. “성탄절기 첫날에 블럼버그 자매님이 받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화분이지요. 아무도 모르는 친구로부터”라고 카드에 적혀 있었다.

이번 성탄절기는 블럼버그 자매님에게 가장 잊지 못할 성탄절이 될 것 같았다. 누군가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음날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더니 또 다른 선물이 놓여 있었다. 카드에는 역시 “아무도 모르는 친구로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성탄절 양초가



“아무도 모르는 친구가 화분을 놓고 갔습니다.”

있었다. 누군가가 이 외로운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2번을 계속 갖다 주었다.

선물은 모두 재미있는 것이었다: 성탄목 장식품 4개, 꽃 5송이, 산타 할아버지 모양의 비누 6개, 과자 7개, 지팡이 모양의 사탕 8개, 등등 이었고 이윽고 성탄절에는 12개의 작은 선물이 담겨 있는 붉은 펠트 양말이 현관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블럼버그 자매가 제매에 문을 열어 보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차에 오르는 소녀의 모습을 훔쳐 볼 수가 있었다.

그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블럼버그 자매는 그 “아무도 모르는 친구”가 바로 청년회 소녀들이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얼마나 사랑스런 소녀들인가! 블럼버그 자매는 카드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선물 하나 하나를 회상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얼굴에 떠올려 본다. 12명의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이 성탄절에 누군가를 생각했던 것이다.

조이스 시 백스트롬 자매는 주부로서 에드먼튼 제6와드의 방문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에드먼튼 엘버타 스테이크 상호 부조회에서 가족 건강 관리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경전과 아침식사

개리 제이코울맨 글

성탄절이 가까와 왔을 때, 나는 동생 개리와 내가 성탄절 휴가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휴가 동안 일을 하고 휴가가 거의 끝날 무렵에 집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나는 개리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 개리의 기숙사는 휴가 동안 문을 닫았고, 나와 방을 같이 쓰고 있던 친구도 고향으로 떠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휴가 동안의 계획을 세우면서 내내 동생 개리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생기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몇 주 전, 그러니까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여 침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교정 근처에서 개리를 만났었다. 나의 가족은 모두 내가 택한 이 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해결을 봤어, 형?” 그가 물었다.

“그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만족한다.” 내가 대답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형은 나의 말형이니까, 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안했을 것이라고 믿어.”

안도감이 나를 감쌌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도 개리는 나를 존경하고 있었다.

나는 복음을 연구하는 수 개월 동안 “어느 교회가 옳은가?”라는 질문으로 몹시 고민했었다. 우리 가정의 말아들로서 나는 어린 동생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나의 책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반드시 올바른 일만을 행해야만 했었다. 해답을 찾으려 애쓰던 그때, 그 날들, 그 달들이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결국, 어느 겨울 아침에 그 해답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얻게 되었다.

이제 나는 복음에 대해서 동생 개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계획은 큰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동생의 근무 시간은 밤이었고 나의 근무시간은 낮이 된 것이다. 겨우 우리 두 형제가 얼굴을 맞볼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시간 뿐이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매일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그리고 얼마간의 침체 기간이 지나더니 참으로 기쁘게도 내 동생은 진리를 찾으려 하기 시작하였다.

성탄절 휴가는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의 하나가 되었다. 이 휴가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서로 나누는” 절기였다. 우리는 틈만 나면 조그만 식탁에 앉아서 복음을 토론했다. 우리가 드는 식사는 우리의 영적인 잔치에 비하면 거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다.

후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또다시 가족 모두로부터 새로운 인식을 경험했으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개리는 3월에 침례를 받았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이제 나에게도 함께 복음을 이해하는 가족이 있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기뻐했고, 함께 우리 형제들에 대한 소망과 관심에 대하여 토론도 했다. 우리의 유대는 해가 갈수록 더 강해졌으며, 가족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차로 늘어나서 누이 동생들과 매제들까지도 침례를 주었고 돌아가신 선조들을 위하여 신전의식도 행하였다.

그때의 그 성탄절을 다시 회고해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드는 식사는 우리의 영적인 잔치에 비하면 거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다”



크고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느껴 본다.

개리 제이 코울맨 형제는 현재 스포케인 신학 연구원 대학부 책임자이며, 스포케인 워싱턴 이스트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성탄절을 맞이한 즐거운 형제들

헝크 차튼 글

내가 살고 있는 네델란드에서 실지로 있었던 이야기이다. 성탄절 바로 다음날에 일어났던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날도 역시 공휴일로 지킨다. 그날 오후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근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기로 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은 교사와 함께 집회소 큰 홀에 모였다. 몇몇 형제님들이 교통편을 마련하기로 부탁을 받았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오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제 병원으로 향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병원에 다다르자, 형제들은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 나무들이 서 있는 조용한 부두 선창가에 차를 세웠다. 자매들은 미끄러운 길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너 가도록 도와 주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서서 노래를 부르고 환자에게 손을 흔들어 주며, 다음에 성탄절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스런 어린이들이 걸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형제들은 그들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오래 계시겠습니까?” 형제 한 분이 초등학교 회장에게 물었다. “늦어도 5시까지는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지치기 때문에 더 오래는 못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저희 집으로 갑시다. 바로 이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함께 가서 시간이 되면 나오기로 합시다.” 쟈슨 형제가 말했다. 형제들은 큰 차에 모두 올라 타고는 가버렸다.

어린이들이 병원의 병상을 돌아 가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베들레헴의 별과 아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을 때, 형제들은 쟈슨 형제의 따스한 집에서 성탄절 과자를 들면서 베들레헴의 별과 아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5시가 되기 전에 주차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차더 찬 부둑가 주차장에 안드리스 형제가 서 있었다. 그도 초등학교 회장에게 자동차를 내어 주었던 형제의 한 사람이었는데 형제들이 그를 깜박 잊고 남

겨 둔 채 그들은 켄슨 형제의 집에 가 있었던 것이었다. 다른 형제들은 즐거운 오후를 지내는 동안 그는 추운 거리에 있었던 것이었다.

형제 한 분이 안드리스 형제에게 가까이 가려 했으나, 그는 그만 가버렸다. 다른 형제가 그를 뒤쫓아 갔으나, 그는 걸음을 재촉하여 공중 전화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떻게 하죠?” “사과해야죠!” “고의로 한 게 아니네!” “이해시켜야 합니다. 일부로 그런 게 아니라구요!”

안드리스 형제는 공중 전화실 안에서 나오더니 곧장 그의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 갔다. 몇몇 형제들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안드리스 형제님!” 그러나 안드리스 형제는 들은 척도 안했다. 그는 차의 문을 쾅 닫았다. 형제 한 분이 차의 문을 열고는 말했다. “안드리스 형제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안드리스 형제는 아무 말도 안하고는 반대쪽 차문을 열고 나와 어안이 병병해 있는 형제들을 지나 병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몹시 화가 나셨어요” 형제 한 분이 말했다. “우리가 자승자박한 거죠” 다른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좀 우리 말을 들어 주기만 하면 좋으련만” 또 다른 형제가 말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내가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켄슨 형제가 말했다.

그러나 안드리스 형제는 그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돌아오자 형제들은 차 문을 열고 아이들을 앉혀서 집회소까지 몰고 와야 했다.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명랑한 이야기 소리를 듣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은 더욱 더 무거워지기만 했다. “하필 성탄절에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집회소에서 켄슨 형제는 안드리스 형제를 만나 이야기 하려 했으나, 안드리스 형제는 벌써 아이들을 내려 놓고 떠나가 버린 후였다.

형제들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를 몰라 하며 모여 섰다. 형제 중에 한 분이 말했다. “아무래도 안드리스 형제님이 마음을 너무 상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빨리 가봅시다” 다른 분이 말했다. “하지만 집에 계실까요? 다른 데 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은 오래 가면 안됩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거의 모두 집으로 가버렸다. 형제 중의 두 분이 초등학교 교사의 남편이었다. 그들은 아내에게 안드리스 형제를 깜박 잊고 남겨 두었던 일을 이야기 해 주었다. 형제들과 자매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일을 잘 수습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그들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궁금히 여기면서 안드리스 형제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부인이 이 일을 아실까요?” “그분은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문은 누가 열어 줄지?”

“화해하러 왔습니다”라고 대변자가 첫마디를 꺼내도록 결정을 보았다. 형제 5명과 자매 2명은 무거운 마음으로 문 앞에 섰다. 문 안에는 추운 거리에서 한 시간 반 동안이나 기다리며 있었던 형제가 있는 것이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안드리스 형제가 활짝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이었다. “들어 오십시오!”

깜짝 놀란 그들은 안드리스 형제의 환대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안드리스 자매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안드리스 자매는 아주 시간을 잘 맞추어 방문해 주었다고 말했다. 아내와 남편이 모두 칠면조를 한 마리씩 사와서 우연히 두 마리가 되었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연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함께 잡수실 여러분들이 오셨으니 말입니다.”라고 안드리스 자매는 덧붙였다.

잠시 후 칠면조 고기가 나오고 집안에는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안드리스 형제가 웃으며 말했다. “성탄절은 정말 좋은 절기예요.” 안드리스 가족이 맞장구쳤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이니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다음 새해 첫번째 일요일의 간증회에서 안드리스 형제는 일어나 자기를 잠시 잊었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랑이 많은 형제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형제님들이 떠날 때, 다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펴 기뻐합니다.”



선교사의 어머니

페트라 지 헤르난데스 자매는 몬테리 멕시코 스테이크에 살고 있는 미망인이다. 슬하의 4남매 중 3명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자매는 선교사의 어머니가 된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주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네 아이들, 플로랄바, 로사 엘리다, 주안 세르지오, 그리고 멜리아 팔미라의 어머니입니다. 19년 전 남편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막내 딸이 11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과 함께 외롭게 깊은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마치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택해야 할 길을 밝히 보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른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냐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나는 참으로 진실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래지 않아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의 젊은 선교사들이 문을 두드리고는 물론 교회에서 왔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물문에 대하여 들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조금도 그것에 대하여 흥미를 가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집안으로 들어 오게 했더니 그들은 첫번째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들으면서 나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번째 토론을 마쳤을 때 나는 그들이 내게 말해 주는 것이 모두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과 함께 침례받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토론을 끝내고 침례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몬테리시의 로마 예배당에서 침례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몬테리 스테이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던 날로부터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곧 선교부 조동협회 제2보좌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으며, 다음에는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돈을 버는 사람은 만만 한 명이었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여 아리조나 신전에 가서 인봉 의식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딸은 직장 관계로 영국으로 건너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 간 지 얼마 안되었을 때, 감독으로부터 복음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은 우리 가정에서 자기가 매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편지를 보내어 의견을 물어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읽을 때, 내 머릿속에는 주님께서 미리 방편을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명하지 않다는 니파이일서 3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편지 읽기를 마친 후, 나는 곧 딸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감독님께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라는 답장을 썼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고 계실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 당시 페루, 칠레, 에콰도르를 포함하고 있는 안데스 선교부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페루 리마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큰 지진이 리마에서 일어나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진이 일어났던 그 시간에 시가지를 택시를 타고 있었던 딸과 동반자는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을 눈 앞에 보면서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알려 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딸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그의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다 쏟아 봉사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끝낼 때에는 주님께서 훌륭한 배필을 마련해 주셔서 오클랜드 신전에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딸 플로랄바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셔서 전혀 궁핍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아들 주안 세르지오가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은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계 공학을 마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했는데 교회의 봉사 기간도 역시 2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벨기에백 신권 소유자라는 사실과 지난 해 아리조나 신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주님 앞에서 성약을 맺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2년 동

안 그의 대표자로서 내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은 이 부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여 친구들과 학우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멕시코 웨스트 선교부(헤르모실, 세노라)로 파견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지식을 많이 쌓았을 뿐 아니라 확고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지부(테카테 지부와 구아사베 지부)의 지부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자 그는 곧 스테이크 재정 서기의 부름을 받더니, 칩실인으로 성임되었고, 다시 몬테리 스테이크 서기로 성별되었으며, 또한 대제사로 성임되었습니다. 그는 대제사가 되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얻은 경험과 간증과 주님의 영감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바를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며, 계속해서 앞으로 자신이 맡게 될 주님의 임무에 대비하여 준비할 것입니다.

아들이 귀환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딸 로사 엘리다가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년간 휴직할 것을 신청했으나, 다시 선교사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사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8년 동안 근무하면서 얻은 모든 권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멕시코 웨스트 선교부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나날을 보내면서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는 성구의 참뜻을 생활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떠나지 않은 아이는 멜리아 팔미라 뿐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인도 주님의 부르심과 그녀의 소망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아이는 지금 교사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단합된 가정이며, 우리 집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죽에게 복음을 가져다가

준 두 분의 선교사로 인하여 이와 같이 단합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해 나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신전에서 나를 침례한 선교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복음을 가져다 준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선교 사업입니다. 시온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모두 선교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의 사업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의 부모가 갖는 임무 중에 하나는 선교 사업을 지지하고 도와 주며 자녀가 선교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려면 회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가 회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확실히 알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회생하여 우리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회생은 축복을 가져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말씀을 적절한 때에 성취시키십니다.

나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교회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삼 13 : 33 참조) 나는 이 사실을 체험을 통해 얻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있으며, 주님은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하여 축복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서는 그와 그의 종을 신뢰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나의 겸손한 간증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낱알이 아될 때, “주여, 나는 나의 일을 다 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5일 제145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십이사도 보조



지금 나는 분만실로 들어 가면서 “애기를 잘 낳을 것 같지 않아요”라고 말하던 초산모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킴벌 대관장님과 접견을 가진 후,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왔던 봉사의 기회는 단지 앞으로 전세계를 통하여 교류하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크게 봉사하기 위한 진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두 내외는 너무나 큰 우리의 계획, 야망, 세상의 욕심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월에 묻혀 참으로 짧은 시간 동안 휩쓸려 가버렸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몇 년 전,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35년째 맞는 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난 이제 미국 대통령에 임후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였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곧 이어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가진 미국 대통령 임후보 자격은 나이뿐이구나.”

오늘 내가 가진 한 가지 자격은, 모든 말일성도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자격이

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성신이 알려 주는 확신이고,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성령의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확신입니다.

여러 해 전, 내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나의 합당성에 대해 세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뱅크터 형제님, 형제님은 복음을 믿습니까?”

나는 내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믿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셉 필립 스미스 대관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복음의 교리를 매우 엄격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양과 염소를 가리는 좋은 질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진실로 말일에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교회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신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준 영향력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아마 내가 가진 몇 가지 조건은 적합한 것일 것입니다. 나의 생업은 목공업입니다. 얼마 전에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가 자기는 십이사도 보조의 직책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고 나서 자신의 변호사 직업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께서 나와 11명의 우리 형제들이 이와 같은 혹은 다른 봉사의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잘 키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어릴 시절부터 장한 어머니이신 나의 어머니께서는 구약 시대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정신으로 생활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건 어머니는 이미 자녀를 주님께 바치시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도록 양육받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자주 기도하며, 온 생애를 봉사의 생활로 지내도록 양육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부름을 받게 된 데에는 많은 사람의 영향 중에서도 나의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윌리엄 에이치 뱅거터와 이사벨 보든은 나에게 있어

서 가장 성스럽고 귀한 이름이며, 나의 형제, 자매 친척들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 자신 단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친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해 전에 영원한 세계로 간 사랑하는 아내 밀드레드를 비롯하여 모든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아내 밀드레드는 첫아이들이 4남매를 낳았으며, 그중 한 아이가 지금 어머니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반려자인 아내, 제랄딘은 기적을 이루는 여인입니다. 어제 페리 장로께서 드린 간증 중에서 나의 아내를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우리 가정에 7명의 자녀를 낳아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건강하고 사랑스럽고 서로를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참으로 풍요롭습니다. 자녀 중 6명은 우리가 그들에게로 돌아 오기를 유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를 이루는 데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는 유년기 시절의 친구들, 청소년기 시절의 친구들, 훌륭한 선교사 동반자들, 여기에서 선교 사업을 함께 했던 파우스트 장로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감독단, 스테이크와 선교 부장단, 고등평의회 등에서 함께 일했던 형제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해임되었으나 지역 대표로 함께 일한 사랑하는 사람들, 때때로 함께 할 수 있었던 특권을 나누었던 총관리 직원, 친한 친구, 교회 안팎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브라질의 성도들과 함께 지냈던 여러 해가 나의 생애에 참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어 놀라운 체험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브라질에서 오신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한 브라질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 나의 사랑과 감사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던 수백명의 선교사들은 마치 한 가족이나 되는 것처럼 친근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교회 부동산 책임자로 봉사하고 계시는 피터 모우릭 형제님의 말씀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때, 부유한 부인 한 분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 와서 모우릭 형제의

1975년 4월 5일 제145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자유지지의 문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보조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이 헌납의 원리를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야말로 진실로 저와 제 가족을 위한 대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하신 실 형제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들어 왔으며, 이번만은 말씀을 더 계속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현재의 제 심정과 지난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험담은 메리온 지 롬이라는 분의 전화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저에게 제 비서가 와서 하는 말이 “메리온 지 롬이라는 분의 전화예요”라고 했습니다.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이시겠지,” 나는 말했습니다.

“그분의 전화라고 말씀드리면 모임중이라도 나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바로 롬니 부대관장님이셨군,”

제 비서는 그분의 비서에게 제가 후에 전화를 다시 걸 것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화를 받았으며, 롬니

부대관장님은 저에게 다섯 가지를 물어 보셨습니다. 형제님은 선교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형제님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물으신 후 그분은 저의 17세 된 아들과 재정과 건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래 전에 배운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지지의 문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중에 어느 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니오”라고 해야만 했다면 저는 자유지지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도덕적으로 합당한 생활을 했으며, 헌납의 법과 그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이 부름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었습니다.

저는 곧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가 그의 아내와 대화를 한 것처럼 저도 제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에 대한 태도도 그들과 비슷했습니다. 제 아내는 세상 어느 곳이든지 저를 따라 다녔습니다. 우리는 열 다섯 번이나 이사했습니다. 그는 2개 국어를 배웠고, 자녀들을 양육했으며, 언제나 저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외국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났던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의자 팔걸이에 앉아 있었고, 저는 아내의 어깨에다 머리를 기대고 있었었습니다. 그 때는 월말이었는데, 아내는 제가 가정 복음 교사 지명을 수행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 일을 생각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가서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납의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매우 존경하는 아더 헤이콧 형제님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간단히 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유하고 분명한 예언자의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헤일즈 형제님, 형제님의 부름을 바피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영국 런던 선교부로부터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형제가 그곳에 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관장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쁘게 가겠습니다”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로 바뀌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좋습니다, 대관장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시 대관장님께서 “3년보다 조금 길어도 괜찮겠습니까?”하고 물으셨습니다. “대관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리 길어

바로 옆에 있는 빈 좌석에 앉았습니다. 앞 좌석에 앉아 있던 남자가 담배 연기를 심하게 내뿜자, 모우릭 형제는 옆에 앉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담배 연기로 기침하지 않아도 될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인은 “그러게 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생각도, 이유도 없이, —이 일은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우릭 형제는 불쑥, “조셉 필딩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모우릭 형제에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거의 혼자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구? 조셉 필딩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구? 그때 생각이 나는구려.” 부인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대회인 듯 싶은 커다란 종교 집회 광경이 나옵니다. 늙은 사람이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그 노인이 나를 쳐다 봅니다. 나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조셉 필딩 스미스라 했던 것 같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와 같은 힘으로 인간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이 수많은 지구상의 인간에게 전해질 것이 때, 나는 이 자리에서 조셉 필딩 스미스와 다른 돌아가신 모든 예언자와 같이 스펀서 더블류 컴블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말씀드리야 하겠습니다. 작년 그분이 교회의 대관장님으로 교회에 소개되었을 때, 주님의 영이 너무도 분명한 소리로 “저 분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내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할 때, 주님의 영이 역시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진실하다고 말해 줄 것을 나는 압니다. 그분은 단지 교회 회원에게만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니, 곧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우리는 만일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에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멸망당하게 되리라는 등의 모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이 온 생애를 바쳐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년간의 일이 눈앞을 스쳐 갔습니다. 저는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다 부러져가는 연약한 나뭇 가지를 붙들고 “사람 살려 주세요”하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 밑에 있는 바위를 내려다 보았을 때 맑고 힘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게 됩니다” 그때 저는 다시 공중을 쳐다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보다 더 훌륭한 조언을 해 줄 분이 거기 계시니까?”

저는 부름을 명백히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십이사도 보조가 되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과 내 생애에서 쟁취하려 했던 모든 것을 놓아 버려야만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지역 대표로 일하면서 저는 자신을 강하게 준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권 소유자들을 알고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

을 받은 총관리 직원들을 지켜 보며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스테이크가 세워지는 일요일마다 이분들이 계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역 대표로써 그들을 보조하고 그들과 함께 무릎꿇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오늘 여기에 계신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할 특별한 간증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처럼 저의 생명을 바쳐 봉사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4-5)

저는 저의 오늘이 있게 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초등학교

와 주일학교 교사님들, 저를 가르치시고 제 일생의 모범이 되어 주신 참으로 “훌륭한 부모님”(니일 1:1)이신 어머니와 아버지, 신앙과 교회 봉사로 항상 모범이 되어 준 저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아내와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 스티븐과 지금 솔트레이크에 저와 함께 있는 아들 데이비드입니다. 그들은 모두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 준 사람들입니다.

저는 십이사도, 총관리 직원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신권 소유자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이같은 부름을 받아 여기에 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 제가 그 일을 해야만 하나요?”라고 묻고 지나치게 생각하며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예언자의 말씀에 따르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저의 과거의 생활을 털어 버리고 저의 모든 시간과 능력과 노력을 헌납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간증에 닳을 내리고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보조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그의 가족과 친지에게 찬사를 드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성스러운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일주일 전 김볼 대관장님은 저를 전화로 부르시고, “부인과 함께 저를 방문하실 시간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언자를 방문할 시간이 있던 말인가?”

진실로 저는 예언자를 만나 빙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끝에서라도 달려 올 것이

며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대관장님께서 저의 부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대관장님의 사무실을 떠날 때도 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3시간 27분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아이다호주 벨라드에 진원을 둔 지진이 있었으며, 솔트레이크에도 지진의 여파가 미쳤습니다. 비로소 그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상의 훌륭한 인물중의 한 분인 브라이언트 에스 킬클리 형제가 몇 년 전 저의 부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금세기에 이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일찌기 없었습니다.”(토마스 카알라의 말에서 인용함) 저는 이 말이 김볼 대관장님께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부친의 무릎에서 겸손, 근면, 성실, 그리고 주님의 중, 즉 교회의 총관리 직원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친의 이쁨을 영예롭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두 훌륭한 여성이 제 생애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가 진리와 의의 길로 가도록 양육하셨습니다. 제가 자란 가정은 영적인 분위기와 사랑과 우아함이 충분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그렇다고 한 가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저의 동반자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인 엘리사입니다. 그는 가장 숭고한 하나님 아버지의 여종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한없는 헌신으로 저를 한결같이 도왔으며 그의 성품은 리브가와 그리고 개척자이셨던 그의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이고 금욕적이며 굳은 신앙과 복음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를 길러 주신 그녀의 부모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의 8명의 자녀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의로운 생활을 볼 때 저는 아내와 함께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교회와 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저의 형제와 자매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운동, 진실로 인생이라는 경기를 가르쳐 주신 체육 코치와 모교와 특히 교회에 계신 많은 훌륭한 교사들을 생각해 봅니다. 메리온 지 롬니 자매님은 저의 초등학교 교사이셨으며 롬니 부대관장님은 저를 선교사로 추천해 주신 감독님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친구들인 많은 훌륭한 형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 그들을 참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제가 매우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조직입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님, 그분의 훌륭한 보좌들, 그리고 유능하고 영감을 받아 일하는 임원들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주일학교는 교회의

선교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크게 조력할 것입니다.

저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기쁘게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스위스의 바젤역을 떠날 때 눈물이 두 뺨을 흘러 내렸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을 바쳐 교회에 봉사하는 기간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독일인과 스위스인을 사랑합니다. 배우기는 험드나 풍부한 표현을 가진 그들

의 언어를 저는 사랑합니다.

제 생애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간증에 닮을 내렸습니 다. 저는 제가 가진 신권을 존중하며, 그 신권으로 병자를 고치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의 종들을 지시하며 우리가 이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이며 그가 받은 계시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교회가 회

복되고 조직되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김볼 대관장님과 단상에 앉아 계신 교회의 총관리 역원 여러분께 사랑을 간직하고 저는 저의 온 생애를 바쳐 대관장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대관장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으며 여기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975년 4월 6일 제145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에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십이사도 보조



교회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결손한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나의 개종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 나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상향회에 초대하여 농구팀에 끼워 주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농구가 재미있어서 상향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후에 나는 주일학교에, 그다음에는 성찬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년 이상 교회에 나가면서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공부하고,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침례를 받기로 혼자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홀어머니에게 침례를 받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왜 우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방금 또 아들 하나를 잃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홀몸이 되신 후에 어머니는 나의 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아들 하나가 기독교에 입교하게 됨으로써 그를 잃으셨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임종시에 아버지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훌륭한 불교 신자가 되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었다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선교사들과 만나게 된 때부터 나는 계속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들로부터 좋은 것만을 배웠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내게 침례받도록 허락만 해 주신다면, 그리고 후에 나의 행동이 어머니를 당황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여 어머니가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신다면 어머니의 말씀에 복종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머니와 가정의 일을 잘 돕고 형제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된다면, “교회에 계속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야 했던 때가 없었고 한 번도 나의 행동으로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들이 가르친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고, 나 스스로 원리를 공부할 때, 나는 나의 앞날은 내가 결코 걱정해야 할 필요

가 없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은 후 항상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항상 마태복음에 기록된 다음 성구를 즐겨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나는 회원이 된 이후로 내게 주어지는 교회 부름은 무엇이거나 결코 거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는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내가 지니고 있는 성신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하와이로 와서 복음을 전파해 주었던 선교사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하와이에서 나와 함께 친분을 가지며 내게 복음의 원리와 지도자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던 교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물론 가정울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주님이 쓰신 도구였으며,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한 복음을 회복시키도록 위임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이후로 모든 교회의 대관장님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오늘날 스펜서 머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이십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메시지

유진 피 털 선교부장

12월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아 아버지 면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활을 개인적인 희생으로 바치셨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기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이며, 오늘날 이 위대한 희생과 선물의 참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선물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며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영원한 진보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생일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선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잠깐 동안 그 선물의 효용을 누리는데 불과하며 몇 년이 지나면 선물을 받았다는 기억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선물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타인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면 두 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이 가치있는 선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시대와 비교해 볼 때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의 임무를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부름받을 때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먼저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가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이 없이는 그 큰 축복을 받을 능력을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헌납의 법을 배울 때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십일조로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외에 건축 기금, 선교사 기금, 금식 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을 내야 하며 우리가 내는 이 모든 헌금은 주님의 사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희생을 요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우리의 신앙과 희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희생의 율법을 따른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한국의 교회 회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여 헌금의 법을 지키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신앙을 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십일조 등의 헌금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경제적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이해하기 곤란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고, 저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티끌만큼이라도 이러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회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한 문을 열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은 여러분이 기꺼이 십일조와 헌금을 바침으로써 활짝 열릴 것입니다. 새해에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축복을 풍성히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운 원리에 기쁜 마음으로 따를 때에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성공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1975년도 성도의 벗

색 인

7

가장 중요한 지식

심프슨, 로버트 엘;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5페이지

가정의 밤

던, 로렌 시; 우리의 귀한 가족;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페이지

가 족

케릴, 로저와 리베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전;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7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57페이지

뱅저터, 윌리엄 그랜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39페이지

위스린, 조셉 비; 간증에 답을 내리고;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3페이지

웨너랜드, 보우 지; 전에도 사랑했었는데;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9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61페이지

콜맨, 개리 제이; "아빠 저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0페이지; 엔사인 1973년 2월호 70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해류와 가정의 영향력;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10페이지

태너, 앤 엘돈; 자녀를 가르침;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표제지; 엔사인 1975년 1월호 63페이지

간 증

고마쯔, 에드니 와이;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고마쯔, 에드니 와이;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렉터, 하트만, 이세; 물몬이즘의 바탕;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55페이지

롬니, 매리온 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2페이지

맥콩키, 브루스 알;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3페이지

뱅저터, 윌리엄 그랜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39페이지

부캐년, 고든 알; 십대 소년 목격자의 증언;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3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23페이지

심프슨, 로버트 엘; 가장 중요한 지식;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5페이지

앤더슨, 제이;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8페이지; 뉴 이라 1973년 1월호 34페이지

앤더슨, 조셉; 그리스도를 증거함;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1페이지

위스린, 조셉 비; 간증에 답을 내리고;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3페이지

페이스, 조지 더블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42페이지

피지에서 있었던 이야기; 축복; 특별한 간증; 훌륭한 모범;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7페이지; 프렌드 1974년 3월호 48페이지

헤르난데스, 페트라 지 드; 선교사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4페이지

헤일즈, 로버트 디;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7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43페이지

간증에 답을 내리고

위스린, 조셉 비;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3페이지

개구리

아세이, 돈; 저음 가수 부머;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3페이지; 프렌드 1974년 8월호 19페이지

개 심

고마쯔, 애드니 와이;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그린, 도일 엘; 테마라마가 가장 행복했던 날;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4년 9월호 43페이지

그린, 존 에이; 말일;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30페이지

렉터, 하트만 이세;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계명;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9페이지; 뉴 이라 1974년 3월호 4페이지

몬슨, 토마스 에스;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에 전당;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7페이지

웬머, 밀드레드 제이; 마리아의 개종 이야기;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6페이지; 프렌드 1974년 5월호 6페이지

콜맨, 개리 제이; 경전과 아침 식사;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61페이지

클라비오, 화비오; 개종 이야기;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2페이지; 뉴 이라 1974년 7월호 39페이지

페리, 엘 톰;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6페이지

하노넨, 헬레나; 다른 아이보다 달라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42페이지

허베즈, 아스문드 에이치; 외할아버지의 용기;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45페이지

개종 이야기

클라비오, 화비오;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2페이지; 뉴 이라 1974년 7월호 39페이지

경 전

경전은 점성술, 복술, 영매, 마술, 요술, 강신술을 어떻게 보나?;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2페이지; 엔사인 1974년 3월호 26페이지

경전과 아침 식사

콜맨, 개리 제이;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61페이지

경전은 점성술, 복술, 영매, 마술, 요술, 강신술을 어떻게 보나?

매튜스, 로버트 제이;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2페이지; 엔사인 1974년 3월호 26페이지

계 명

실, 스티얼링 더블류; 금식의 법;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9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4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주는 우물당하지 아니할 것임 이니라;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페이지

계 보

스미스, 엘드레드 지; 뒤로 미루지 말라;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5페이지

파머, 호이트;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70페이지

계 시

하트손, 레온 알; 매튜 카우리;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9페이지;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고 결

롬니, 배리온 지;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1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3페이지

브라운, 빅터 엘;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3페이지

영, 에스 딜워스; 총관리 역원의 이야기: 아들에게 주는 충고;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8페이지; 뉴 이라 1974년 6월호 44페이지

피터슨, 마크 이;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결한 성품을 지닌 분";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0월호 15페이지

고마쯔, 애드니 와이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공의롭고 합당한 시온의 대업

킴볼, 스펜서 더블류;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1년 5월호 55페이지

공 포

애쉬튼, 웬델 제이; 늑대의 울음 소리;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1년 8월호 61페이지

과학과 종교

버튼, 메오도르 엠; 신앙의 방패;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2페이지 ; 뉴 이라 1975년 2월호 4페이지

꽃

월링, 마리아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0페이지

교리와 성약

비처, 모린 우센바하 : 유산의 발견 : 우리를 죽일 거야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6페이지 ; 뉴 이라 1974년 9월호 36페이지

교 회 사

테일러, 헨리 니 ; 금식의 법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0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14페이지

구 약

라스무센, 엘리스 티 ;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9페이지 ; 엔사인 1973년 10월호 76페이지

루드로우, 빅터 엘 ;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9페이지 ; 엔사인 1973년 10월호 59페이지

백콩키, 브르스 알 ;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알 가지 열쇠 ;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14페이지 ; 엔사인 1973년 10월호 78페이지

머저비, 키드 에이치 ;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0페이지 ; 엔사인 1973년 10월호 61페이지

머저비, 키드 에이치 ;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1페이지 ; 엔사인 1973년 10월호 59페이지

버튼, 엘마 피 ;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9페이지 ; 엔사인 1973년 10월호 76페이지

트베트네스, 존 에이 ; 요나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0페이지 ; 엔사인 1974년 6월호 27페이지

구약과 신약과의 과도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6페이지 ; 엔사인 1974년 9월호 18페이지

그랜트, 히버 제이

예언자와 선교사업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4페이지 ; 예언자의 생애에 있었던 이야기, 교회의 예언자, 뉴 이라 1974년 2월호에서 발췌하여 편집함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속죄의 희생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페이지 ; 엔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그룩크너, 캐롤린

마크의 조개 껍질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4페이지 ; 프렌드 1974년 6월호 4페이지

그루버, 프란쯔

티롤의 노래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7페이지 ; 프렌드 1971년 12월호 7페이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페이스, 조지 더블류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9페이지 ; 엔사인 1974년 42페이지

그리퍼드스, 토마스 제이

핍박, 1924년의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7페이지 ; 엔사인 1975년 1월호 12페이지

그린, 도일 엘

테마라마가 가장 행복했던 날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1페이지 ; 프렌드 1974년 9월호 43페이지

그린, 존 에이

말일 ;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5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2월호 30페이지

금 식

벤슨, 에즈라 태프트 ; 절망하지 말라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42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65페이지

실, 스타얼링 더블류 ; 금식의 법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5페이지 ; 엔사인 1974년 7월호 9페이지

테일러, 헨리 디 ; 금식의 법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0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14페이지

금식의 법

실, 스타얼링 더블류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5페이지 ; 엔사인 1974년 7월호 9페이지

테일러, 헨리 디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0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14페이지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파머, 호이트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5페이지 ; 엔사인 1974년 8월호 70페이지

기 도

롭니, 메리온 지 ;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표제지 ; 처치 뉴스 1974년 11월 9일 3페이지

테일러, 헨리 디 ;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2페이지 ; 프렌드 1974년 11월호 6페이지

페이스, 조지 더블류 ;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9페이지 ; 엔사인 1974년 9월호 42페이지

하트슨, 레온 알 ; 매튜 카우리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9페이지 ;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 ?

킴블, 스펜서 더블류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0페이지 ; 엔사인 1975년 5월호 4페이지

나 부

힉클리, 고든 비 ; 산 위에 있는 동네 ;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7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98페이지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몬슨, 토마스 에스;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7페이지

남미 선교부

남미의 교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6페이지; 엔사인 1975년 2월호 19페이지

남미의 교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6페이지; 엔사인 1975년 2월호 19페이지

남미 지역 대회

힐러, 래리;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0페이지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페리, 엘 톰;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6페이지

늑대의 울음 소리

애쉬튼, 웬델 제이;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1년 8월호 61페이지

ㄷ

다른 아이보다 달라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하노벤, 헬레나;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42페이지

다윗과 골리앗

김볼, 스펜서 더블류;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9페이지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안데르센, 한스 크리스찬;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6페이지; 프렌드 1974년 8월호 30페이지

대만: 가파른 봉우리와 강한 신앙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5년 8월호 55페이지

대서양 횡단: 새로운 사실

치스맨, 폴 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5년 1월호 50페이지

대회를 우리 생애의 전환점으로 만들자

파이언스, 제이 토마스;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63페이지

대회 말씀

고마쯔, 애드니 와이;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고마쯔, 애드니 와이;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던, 로렌 시; 우리의 귀한 가족;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랙터, 하트만 이세; 물몬이즘의 바탕;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55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롬니, 매리온 지; 고결;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3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롬니, 매리온 지; 부활절의 의의;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82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롬니, 매리온 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8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리차즈, 프랭크린 디;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5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6페이지

리차즈, 프랭크린 디; 화평이 가져다 주는 축복;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5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맥스웰, 널 에이; 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3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맥콩키, 브르스 알;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3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몬슨, 토마스 에스;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7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뱅저터, 윌리엄 그랜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39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버튼, 데오도르 엠; 엘리야의 권세;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61페이지; 1974년 4월 연차 대회

벤슨, 에즈라 태프트; 절망하지 말라;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4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65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벤슨, 에즈라 태프트; 하나님의 말씀: 물본경;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5년 8월호 63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브라운, 빅터 엘;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스미스, 엘드레드 지; 뒤로 미루지 말라;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5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스미스, 엘드레드 지; 무덤에서 3일간;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 96페이지; 1974년 4월 연차 대회

스테이플리, 델버트 엘; 좋은 습관은 훌륭한 성품을 낳는다;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0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스테이플리, 델버트 엘;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5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6페이지

스토운, 오 레스리; 진복판단;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1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십프슨, 로버트 엘; 가장 중요한 지식;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5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애쉬튼, 마빈 제이; 어느 팀이, 지고 있습니까?;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1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앤더슨, 조셉; 그리스도를 증거함;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1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영, 에스 딜워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0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워스린, 조셉 비; 간증에 닳을 내리고;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3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크리스찬슨, 엘레이 엘; 사탄을 이기는 권세;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2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킴볼, 스펜서 더블류; 공의롭고 합당한 시온의 대업;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118페이지; 1974년 4월 연차 대회

킴볼, 스펜서 더블류;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4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킴볼, 스펜서 더블류; 다윗과 골리앗;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9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7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주는 우롱당하지 아닐 것임 이니라;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5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6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해류와 가정의 영향력;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10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태너, 엔 엘돈; 미대륙의 그리스도;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 34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태너, 엔 엘돈; 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6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태너, 엔 엘돈; 왜 내 아들이 오늘밤 방황하고 있을까?;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84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터틀, 에이 테오도르;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1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터틀, 에이 테오도르;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벗 7월호 25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6페이지

테일러, 헨리 디; 금식의 법;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4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파이언스, 제이 토마스; 대회를 우리 생애의 전환점으로 만들자;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5년, 1974년 11월호 63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패커, 보이드 케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87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페리, 엘 톰;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6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피네가, 렉스 디; 우리는 의로움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3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피터슨, 마크 이; 영원히 함께 함;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8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피터슨, 에이치 버크; 언덕 위의 봉화처럼;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68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행스, 매리온 디; 소년에게 성인 남자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76페이지; 1974년 4월 연차 대회

헌터, 하워드 더블류; 하나님을 알라;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6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헤일즈, 로버트 디;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7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43페이지; 1975년 4월 연차 대회

헝클리, 고든 비; 산 위에 있는 동네;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8페이지; 1974년 10월 반연차 대회

더크의 새 축구공

홀, 레오 디;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7페이지; 프렌드 1974년 11월호 35페이지

더햄, 지 호머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8페이지; 뉴 이라 1974년 3월호, 10페이지

던, 로렌 시

우리의 귀한 가족;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페이지

도 덕

킴볼, 스펜서 더블류; 주는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 이니라;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페이지

도미꼬의 친구

레만, 폴리;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2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6페이지

동 굴

워런드, 칼라;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1년 7월호 65페이지

뒤로 미루지 말라

스미스, 엘드리드 지;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5페이지

뒤의 일을 잊음

히그비, 케네스 엘;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2년 9월호 84페이지

근

라스무센, 엘리스 티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76페이지

라이언, 티 에드가

희랍—로마가 성지에 미친 영향;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0페이지

랜달, 루드안 보이어

손,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4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32페이지

레만, 폴리

도미꼬의 친구;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2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6페이지

레몬, 캐롤 에스

해결책을 찾은 화니토;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4년 5월호 9페이지

레본, 크리스찬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61페이지

레이맨인

윌리스, 하워드 이; 신권이 내 생애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함;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9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44페이지

렉터, 하트만 이세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계명;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9페이지; 뉴 이라 1974년 3월호 4페이지

몰몬이즘의 바탕;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55페이지

로 마

라이언, 티 에드가; 희랍—로마가 성지에 미친 영향;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0페이지

룩키 산의 주일학교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20페이지

롬니, 매리온 지

고결;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3페이지

기도;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표제지; 처치 뉴스, 1974년 11월 9일 3페이지

부활절의 의의;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7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82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페이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8페이지

루드로우, 빅터 엘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60페이지

루스머, 알베르

그린, 존 에이; “말일”;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30페이지

리차즈, 리그랜드

죽은 후에는 무엇을;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52페이지

리차즈, 프랭크린 디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5페이지

지 ; 앤사인 1975년 2월호 6페이지
화평이 가져다 주는 축복 ;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9페이지 ; 앤사인 1974년 12월호 105페이지

리, 해롤드 비
속리의 희생 :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페이지 ; 앤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예언자와 선교 사업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4페이지 ;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에서 편집함 ; 뉴 이라 1974년 2월호

리언, 도로시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8페이지 ; 프렌드 1974년 12월호 46페이지
혀는 마음의 붓이다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2페이지 ; 프렌드 1974년 10월호 20페이지

ㄱ

마리아
리언, 도로시 ;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8페이지 ; 프렌드 1974년 12월호 46페이지

마리아와 요셉
매튜스, 로버트 제이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6페이지 ; 앤사인 1974년 12월호 13페이지

마리아의 개종 이야기
웜머, 밀드레드 제이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6페이지 ; 프렌드 1974년 5월호 6페이지

마크의 조개 껍질
그록크너, 케로린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4페이지 ; 프렌드 1974년 6월호 4페이지

마투아우토, 시푸아오
영광스러운 순간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7페이지 ; 앤사인 1974년 8월호 61페이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패커, 보이드 케이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표제지 ; 앤사인 1974년 11월호 87페이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6페이지 ; 앤사인 1974년 9월호 18페이지

말 일
그린, 존 에이 ;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5페이지 ; 앤사인 1974년 12월호 30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전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8페이지 ; 앤사인 1974년 8월호 2페이지

매튜스, 로버트 제이

경전은 점성술, 복술, 영매, 마술, 요술, 강신술을 어떻게 보나?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2페이지 ; 앤사인 1974년 3월호 26페이지

마리아와 요셉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6페이지 ; 앤사인 1974년 12월호 13페이지

맥스웰, 닐 에이
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0페이지 ; 앤사인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맥케이, 데이비드 오
그리피드스, 토마스 제이 ; 필박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7페이지 ; 앤사인 1975년 2월호 12페이지
속죄의 희생 :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페이지 ; 앤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영감의 메시지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표제지 ; 소책자—신전의 목적

예언자와 선교 사업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4페이지 ;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 뉴 이라 1974년 2월호

맥켄나, 이마 데
물문경은 나에게 글 읽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13페이지 ; 앤사인 1975년 2월호 40페이지

맥콩키, 브르스 알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7페이지 ; 앤사인 1974년 11월호 33페이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열 가지 열쇠 ;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14페이지 ; 앤사인 1973년 10월호 78페이지

장로라야만 ;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페이지 ; 앤사인 1975년 6월호 66페이지

머저비, 키드 에이치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0페이지 ; 앤사인 1973년 10월호 59페이지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1페이지 ; 앤사인 1973년 10월호 61페이지

메디나, 안나 데
맥켄나, 이마 데 ; 물문경은 나에게 글 읽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13페이지 ; 앤사인 1975년 2월호 40페이지

메릴, 로저와 리베카
부모란 :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전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7페이지 ; 앤사인 1974년 8월호 57페이지

멜기세덱 신권
킴블, 스펜서 더블류 ; 아브라함의 모범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페이지 ; 앤사인 1975년 6월호 3페이지

이지

모린, 왈키스트

파머, 호이트;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70페이지

모 법

크라크로프트, 리차드 에이치; 음덕을 행하라;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1년 5월호 55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다윗과 골리앗;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9페이지

테일러, 헨리 디;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2페이지; 프렌드 1974년 11월호 6페이지

행스, 매리온 디; 소년에게 성인 남자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76페이지

모 세

머저비, 키드 에이치;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0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61페이지

버튼, 엘마 피;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76페이지

모어, 조셉

티롤의 노래;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1년 12월호 7페이지

목자의 음성

하몬, 폴 엘;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표제지; 엔사인 1975년 1월호 62페이지

몬슨, 토마스 에스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7페이지

성탄절의 정신;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1페이지; 뉴 이라 1974년 12월호 14페이지

물 문 경

백켄나, 이마 데; 물문경은 나에게 글읽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13페이지; 엔사인 1975년 2월호 40페이지

벤슨, 에즈라 테프트; 하나님의 말씀: 물문경;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63페이지

클라비오 화비오; 개종 이야기;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2페이지; 뉴 이라 1974년 7월호 39페이지

태너, 엔 엘돈; 미대륙의 그리스도;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34페이지

물문경은 나에게 글읽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켄나, 이마 데;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13페이지

지; 엔사인 1975년 2월호 40페이지

물문이즘의 바탕

렉터, 하트만, 이세;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55페이지

무덤에서 삼일

스미스, 엘드리드 지;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96페이지

무어, 조안 안드레

무엇이 음악을 만드나?;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6페이지; 프렌드 1974년 3월호 14페이지

무엇이 음악을 만드나?

무어, 조안 안드레;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6페이지; 프렌드 1974년 3월호 14페이지

미대륙의 그리스도

태너, 엔 엘돈;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34페이지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맥콩키, 브루스 알;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3페이지

바

바다 동굴

외런드, 칼라; 동굴;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1년 7월호 65페이지

바다 동물

그록크너, 캐로린; 마크의 조개 껍질;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4페이지; 프렌드 1974년 6월호 4페이지

레만, 폴리; 도미꼬의 친구;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2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6페이지

반짝이는 벽

신더가드, 아이리스;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5년 3월호 10페이지

발 건

치스맨, 폴 알; 대서양 횡단: 새로운 사실;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5년 1월호 50페이지

트베트네스, 존 에이; 요나;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0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27페이지

발렌타인, 리차드

룩키 산의 주일학교;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20페이지

베스찬, 래리

부모나 청소년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오늘날의 음악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37페이지

- 백스트롬, 조이스**
 열 두 가지 성탄절 선물;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62페이지
- 뱅거터, 윌리엄 그랜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6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39페이지
- 버튼, 테오도르 엠**
 신앙의 방패;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2페이지; 뉴이라 1975년 2월호 4페이지
 엘리야의 권세;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61페이지
- 버튼, 엘마 피**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76페이지
- 범 법**
 태너, 엔 엘돈; 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6페이지
 태너, 엔 엘돈; 왜 내 아들이 오늘밤 방황하고 있을까?;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84페이지
- 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
 태너, 엔 엘돈;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6페이지
- 벤슨, 에즈라 태프트**
 하나님의 말씀: 물본경;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63페이지
 절망하지 말라;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4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65페이지
 피터슨, 마크 이;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결한 성품을 지닌 분;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0월호 15페이지
- 변형된 몸**
 버튼, 엘마 피;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76페이지
- 별의 축제**
 홀퀴, 마가렛트 나이트,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6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28페이지
- 복음을 전하는 방법: 단계적인 접근 방법**
 에버하드, 어베스트;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6페이지
- 북 천 년**
 리차즈, 리그랜드; 죽은 후에는 무엇을;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52페이지
- 봉 사**
 리언, 도로시;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46페이지
 김볼, 스펜서 더블류; 인생의 목적;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페이지; 뉴이라 1974년 9월호 4페이지
 테일러, 헨리 디; 금식의 법;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4페이지
 헨릭슨, 콜린; 오스몬드 형제들의 사랑;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 부모나 청소년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오늘날의 음악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배스찬, 래리;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37페이지
- 부모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진 메릴, 로저와 리베카;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7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57페이지**
- 부에노스 아이레스**
 힐리, 래리; 남미 지역 대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0페이지
- 부캐년, 고든 알**
 십대 소년 목격자의 증언;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3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23페이지
- 부 활**
 롬니, 메리온 지; 부활절의 의의;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82페이지
 스미스, 엘드리드 지; 무덤에서 삼일;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96페이지
- 부활절의 의의**
 롬니, 메리온 지;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82페이지
- 브라운, 빅터 엘**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3페이지
- 브라질**
 남미의 교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5년 2월호 19페이지
- 브란트 에드워드 제이**
 팔레스타인의 일상생활;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2페이지
- 블랩, 그레이스**
 와다나베, 간; 사카이, 기요시; 야기누마 수이지; 헨디, 밀드레드 이; 일본: 해 뜨는 나라에 비친 복음의 빛;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5년 8월호 36페이지

블록스텝, 브렌다

부모님은 절 신전에 데려 가셨어요;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61페이지

비쳐, 모린 우센바하

유산의 발견: 우리를 죽일 거야;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6페이지; 뉴 이라 1974년 9월호 36페이지

入

사카이, 기요시

일본: 헤뜨는 나라에 비친 복음의 빛;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5년 8월호 36페이지

사 랑

맥케이, 데이비드 오; 영감의 메시지;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표제지; 소책자...신전의 목적

몬슨, 토마스 에스;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에 전당;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7페이지

옛 중국의 이야기;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4페이지; 프렌드 1974년 7월호 48페이지

하트손, 레온 알; 매튜 카우리;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9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사 복 음

사복음서의 일치점;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1페이지

사 복음서의 일치점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8페이지

사자와 율법 선생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4페이지; 프렌드 1974년 4월호 36페이지

사탄을 이기는 권세

크리스찬슨, 엘레이 엘;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2페이지

산 위에 있는 동네

헝클러, 고든 비;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8페이지

상 파울로

힐러, 래리; 남미 지역 대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0페이지

상호부조회

스페포드, 벨 에스, 본부 회장과와의 접견;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15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42페이지

새로운 국제 조직

헌터, 하워드 더블류; 블록뱅크, 버나드 피; 이 세상의 끝까지: 새로운 국제 조직에 관한 좌담회;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5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7페이지

선 교 사

렉터, 하트만, 이세;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계명;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9페이지; 뉴 이라 1974년 3월호 4페이지

몬슨, 토마스 에스;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에 전당;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7페이지

심프슨, 로버트 엘; 가장 중요한 지식;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5페이지

에버하드, 어네스트; 복음을 전하는 방법: 단계적인 접근법;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6페이지

예언자와 선교 사업; 성도의 벗 2월호 14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에서 편집함; 뉴 이라 1974년 2월호

우리의 선교사 친구: 모든 회원은 선교사임; 성도의 벗 1월호 22페이지; 프렌드 1974년 5월호 32페이지

인가도 없는 곳에;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5페이지; 뉴 이라 1974년 5월호 24페이지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3페이지; 처치 뉴스, 1974년 10월 9일 7페이지

크래크로프트, 리처드 에이치; 음덕을 행하라;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1년 5월호 55페이지

터틀, 에이 데오도르;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1페이지

패커, 보이드 케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87페이지

피터슨, 에이치 버크; 언덕 위의 봉화처럼;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68페이지

하노넨, 헬레나; 다른 아이보다 달라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42페이지

하트손, 레온 알; 매튜 카우리;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9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 헤르난데스, 페트라 지 드; 선교사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4페이지
- 힐러, 래리; 칠십인 제일 정월회 로렌 시 던 장로와의 접견;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5페이지
-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
터틀, 에이 테오도르;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1페이지
- 선교사의 어머니
헤르난데스, 페트라 지 드;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4페이지
- 선교부
브룩뱅크, 버나드 피; 헌터, 하워드 더블류; 이 세상의 끝까지: 새로운 국제 조직에 관한 좌담회;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5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7페이지
- 성공
애쉬튼, 마빈 제이; 어느 팀이 지고 있습니까?;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1페이지
- 성신
성신의 은사;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인간도 없는 곳에;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5페이지, 뉴이라 1975년 5월호 46페이지
크리스찬슨, 엘레이 엘; 사탄을 이기는 권세,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2페이지
- 성신의 은사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 성지
라이언, 티 에드가; 회람—로마가 성지에 미친 영향;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0페이지
스미스, 엘드레드 지; 무덤에서 삼일;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96페이지
- 성탄절
대관장단이 전세계의 교회 어린이에게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2페이지
몬슨, 토마스 에스; 성탄절의 정신;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1페이지; 뉴이라 1974년 12월호 14페이지
백스트롬, 조이스; 열 두 가지 성탄절 선물;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62페이지
- 콜맨, 개리 제이; 경전과 아침 식사;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61페이지
- 성탄절 노래
티롤의 노래;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7페이지; 프렌드 1971년 12월호 7페이지
- 성탄절을 맞이한 즐거운 형제들
차든, 헝크;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3페이지
- 성탄절의 정신
몬슨, 토마스 에스;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1페이지; 뉴이라 1974년 12월호 14페이지
-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
리언, 도로시;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8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46페이지
- 소년에게 성인 남자가 필요합니다
행스, 매리온 디;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76페이지
- 속죄
롬니, 매리온 지; 부활절의 의의;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82페이지
롬니, 매리온 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8페이지
페이슨, 조지 더블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42페이지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속죄의 희생;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 손
랜달, 루드안 보이어;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4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5페이지
- 순종
고마즈, 애드니 와이;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안데르센, 한스 크리스찬;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6페이지; 프렌드 1974년 8월호 30페이지
김블, 스펜서 더블류;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4페이지
- 쉴링, 마리아
꽃;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0페이지
- 스노우, 로렌조
속죄의 희생: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예언자와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4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뉴이타 1974년 2월호

스미스, 엘드리치 지

뒤로 미루지 말라;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5페이지

무덤에서 삼일;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5월호 96페이지

스미스, 요셉

부캐년, 고든 알; 십대 소년 목격자의 증언;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3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23페이지

속죄의 희생;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예언자와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4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뉴이타 1974년 2월호

예언자의 성탄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3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표제지

스미스 조셉 에프

속죄의 희생;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중앙부

예언자와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4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뉴이타 1974년 2월호

스미스, 조셉 필딩

속죄의 희생;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예언자와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4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뉴이타 1974년 2월호

스미스, 조지 엘버트

속죄의 희생;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예언자와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4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뉴이타 1974년 2월호

스태이플리, 델버트 엘

좋은 습관은 훌륭한 성품을 낳는다;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0페이지
친구가 친구에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5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6페이지

스톤, 오 레스리

정직;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2페이지; 프렌드 1975년 1월호 6페이지

진복팔단; 성도의 벗 7월호 33페이지, 엔사인 1974

년 1월호 31페이지

스페포드, 벨 에스, 본부 회장과과의 대담

여성의 모든 면을 돌보는 상호부조회;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15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42페이지

스펜서, 올슨

신앙: 아버지의 권고를 기억함;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4년 8월호 15페이지

승 영

레본, 크리스찬; 나는 신전에...;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61페이지

롭니, 배리온 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8페이지

크리스찬슨, 엘레이 엘; 사탄을 이기는 권세;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2페이지

팔머, 호이트;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70페이지

신 권

더햄, 지 호머;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5년 6월호 66페이지

롭니, 배리온 지; 고결;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3페이지

백콩키, 브르스 알; 장로라야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5년 6월호 66페이지

성신의 은사;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윌리스, 하워드 더블류; 신권이 내 생애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함;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9페이지; 뉴이타 1974년 5월호 38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다윗과 골리앗;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9페이지

태너, 엔 엘돈; 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6페이지

태너, 엔 엘돈; 왜 내 아들이 오늘밤 방황하고 있을까?;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84페이지

터틀, 에이 테오도르;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1페이지

피터슨, 에이치 버크; 언덕 위의 봉화처럼;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신권이 내 생애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함

윌리스, 하워드 이;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9페이지; 뉴 이라 1974년 5월호 38페이지

신더가드, 아이리스

반짝이는 벽;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5년 3월호 10페이지

신 앙

백종기, 브르스 알;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3페이지

버튼, 데오도르 엠; 신앙의 방패;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2페이지; 뉴 이라 1975년 2월호 4페이지

헌터, 하워드 더블류; 하나님을 알라;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6페이지

신앙: 아버지의 권고를 기억함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4년 8월호 15페이지

신앙의 방패

버튼, 데오도르 엠;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2페이지; 뉴 이라 1975년 2월호 4페이지

신 약

브란트, 에드워드 제이; 팔레스타인의 일상 생활;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11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2페이지

사 복음서의 일치점;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8페이지

신약상의 화폐(도표)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1페이지

신약 서표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맨 뒷장

신약 성서의 세계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18페이지

신약 시대의 시간(도표)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3페이지

신 전

레본, 크리스찬;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61페이지

마투아우토, 시푸아오; 영광스러운 순간;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61페이지

블록스햄, 브렌다; 부모님은 절 신전에 데려 가셨어요; 성도의 벗 1974년 1월호 17페이지

웨너런드, 보우 지; 전에도 사랑했었는데;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61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인생의 목적;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4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신전과 영원한 결혼;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2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주는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 이니라;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페이지

하트슨, 레온 알; 매튜 카우리;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9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힝클리; 고든 비; 왜 신전을 지을까요?;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4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37페이지

신전과 영원한 결혼

킴볼, 스펜서 더블류;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2페이지

신전 설계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14페이지

신전의 목적

백케이, 데이비드 오; 영감의 메시지;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표제지; 소책자...신전의 목적

실, 스테럴링 더블류

금식의 법;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9페이지

안식일;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39페이지

십 관

킴볼, 스펜서 더블류;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 하느냐?;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4페이지

킴볼, 스펜서 더블류; 주는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 이니라; 성도의 벗 2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페이지

십프슨, 로버트 엘

가장 중요한 지식;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5페이지

십 일 조

하트슨, 레온 알; 매튜 카우리; 성도의 벗 1975년 1

월호 29페이지 ;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홀, 레오 더 ; 더크의 새 축구공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7페이지 ; 프렌드 1974년 11월호 35페이지

십일조와 금식 헌금

패커, 보이드 케이 ;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87페이지



아리마데 요셉

스미스, 엘드리드 지 ; 무덤에서 삼일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43페이지 ; 엔사인 1974년 5월호 96페이지

아르헨티나

남미의 교회 ;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6페이지 ; 엔사인 1975년 2월호 19페이지

“아빠 저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콜맨, 개리 제이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0페이지 ; 엔사인 1973년 2월호 70페이지

아브라함

머저비, 키드 에이치 ;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1페이지 ; 엔사인 1973년 10월호 59페이지

킴블, 스펜서 더블류 ; 아브라함의 모범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페이지 ; 엔사인 1975년 6월호 3페이지

아브라함의 모범

킴블, 스펜서 더블류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페이지 ; 엔사인 1975년 1월호 3페이지

아세이 돈

저음 가수 부머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3페이지 ; 프렌드 1974년 8월호 19페이지

안 식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4페이지 ; 프렌드 1974년 4월호 36페이지

실, 스티얼링 더블류 ; 안식일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1페이지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9페이지

킴블, 스펜서 더블류 ; 주는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 이니라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0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4페이지

안 식 일

실, 스티얼링 더블류 ; 성도의 벗 1974년 8월호 21페이지 ; 프렌드 1975년 39페이지

에쉬튼, 마빈 제이

어느 팀이 지고 있습니까? ;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41페이지

에쉬튼, 웬델 제이

능대의 울음소리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9페이지 ; 엔사인 1971년 8월호 61페이지

앤더슨, 제이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8페이지 ; 뉴 이라 1973년 1월호 34페이지

앤더슨, 조셉

그리스도를 증거함 ;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44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1페이지

앤더슨, 한스 크리스찬(각색함)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6페이지 ; 프렌드 1974년 8월호 30페이지

야기누마, 수이지

와다나베, 간 ; 사카이, 기요시 ; 헨디, 빌드레드 이 ; 블랜, 그레이스 ; 일본 : 해 뜨는 나라에 비친 복음의 빛 ;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21페이지 ; 엔사인 1975년 8월호 36페이지

어느 팀이 지고 있습니까?

에쉬튼, 마빈 제이 ;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41페이지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테일러, 헨리 더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2페이지 ; 프렌드 1974년 11월호 6페이지

어 린 이

콜맨, 개리 제이 ; “아빠 저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0페이지 ; 엔사인 1973년 2월호 70페이지

우리의 선교사 친구 :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2페이지 ; 프렌드 1974년 5월호 32페이지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브라운, 빅터 엘 ;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6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3페이지

언덕 위의 봉화처럼

피터슨, 버크 에이치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43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68페이지

에버하드, 어네스트

복음을 전하는 방법 : 단계적인 접근법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8페이지 ; 엔사인 1974년 6월호 6페이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 고결한 성품을 지니신 분

피터슨, 마크 이 ;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5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0월호 15페이지

엘 리 야

버튼, 메오도르 엠 ; 엘리야의 권세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7페이지 ; 엔사인 1974년 5월호 61페이지

버튼, 엘마 피 ;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 9페이지 ; 엔사인 1973년 10월호 76페이지
- 엘리아의 권세
버튼, 테오도르 엠 ; 성도의 빛 1975년 1월호 37페이지 ; 엔사인 1974년 5월호 61페이지
- 여성과 신권
스페포드, 벨 에스, 본부 회장과와의 대담 ; 여성의 모든 면을 돌보는 상호부조회 ; 성도의 빛 1975년 3월호 15페이지 ; 엔사인 1974년 6월호 42페이지
- 여성의 모든 면을 돌보는 상호부조회
스페포드 ; 벨 에스, 본부 회장과와의 접견 ; 성도의 빛 1975년 3월호 15페이지 ; 엔사인 1974년 6월호 42페이지
- 연 기
맥스웰, 널 에이 ; 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 ;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40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스미스, 엘드레드 지 ; 뒤로 미루지 말라 ; 성도의 빛 1975년 6월호 44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25페이지
- 연대순으로 본 그리스도의 생애
성도의 빛 1975년 9월호 28페이지 ; 엔사인 1974년 9월호 24페이지
- 열 두 가지 성탄 선물
백스트롬, 조이스 ; 성도의 빛 1975년 12월호 21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2월호 62페이지
- 영, 브리갠
속죄의 희생 :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 성도의 빛 1975년 3월호 2페이지 ; 엔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예언자와 선교 사업 ; 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14페이지 ;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 뉴 이라 1974년 2월호
- 영 생
리차즈, 리그랜드 ; 죽은 후에는 무엇일 ? ; 성도의 빛 1975년 6월호 34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52페이지
- 영, 에스 딜워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 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30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90페이지
총관리 역원의 이야기 : 아들에게 주는 충고 ;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18페이지 ; 뉴 이라 1974년 6월호 44페이지
- 영원히 함께 함
피터슨, 마크 이 ; 성도의 빛 1975년 6월호 30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48페이지
- 예수 그리스도
대관장단 ; 전 세계의 교회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 성도의 빛 1975년 12월호 14페이지 ; 프렌드 1975년 12월호 2페이지
리언, 도로시 ;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 ; 성도의 빛 1975년 12월호 18페이지 ; 프렌드 1974년 12월호 46페이지
롬니, 메리온 지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의 간증 ; 성도의 빛 1975년 9월호 11페이지 ; 엔사인 1974년 9월호 2페이지
속죄의 희생 :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 성도의 빛 1975년 3월호 2페이지 ; 엔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앤더슨, 조셉 ; 그리스도를 증거함 ; 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44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1페이지
연대순으로 본 그리스도의 생애 ; 성도의 빛 1975년 9월호 28페이지 ; 엔사인 1974년 9월호 24페이지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 성도의 빛 1975년 3월호 1페이지 ; “용서가 낳는 기적” 179페이지
페이슨, 조지 더블류 ;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 성도의 빛 1975년 3월호 9페이지 ; 엔사인 1974년 9월호 46페이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
롬니, 메리온 지 ; 성도의 빛 1975년 1페이지 ; 엔사인 1974년 9월호 2페이지
- 예수님 이야기
성도의 빛 1975년 3월호 23페이지 ; 프렌드 1974년 4월호 중앙부
- 예언자
예언자와 선교 사업 ; 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14페이지 ;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 뉴 이라 1974년 2월호
- 예언자와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14페이지 ; 예언자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 뉴 이라 1974년 2월호
- 옛 중국의 이야기
성도의 빛 1975년 5월호 24페이지 ; 프렌드 1974년 7월호 48페이지
- 오리가미
홀취, 마가렛트 나이트 ; 별의 축제 ; 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26페이지 ; 프렌드 1975년 2월호 28페이지
- 오스몬드 형제들
헨릭슨, 콜린 ; 오스몬드 형제들의 사랑 : 음악을 통하여 ; 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14페이지 ; 뉴 이라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 오스몬드 형제들의 사랑 : 음악을 통하여
헨릭슨, 콜린 ; 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14페이지 ; 뉴 이라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와다나베, 간

사카이 기요시; 야기누마 수이지; 헨디, 밀드레드 이; 블랩, 그레이스; 일본: 해뜨는 나라에 비친 북음의 빛; 성도의 빛 1975년 11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5년 8월호 36페이지

와싱턴 신전

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5년 2월호 79페이지

힝클리, 고든 비; 산 위에 있는 동네; 성도의 빛 1975년 6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8페이지

신전 설계; 성도의 빛 1975년 1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14페이지

와싱턴 신전 헌납 기도문

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5년 2월호 79페이지

왜 내 아들이 오늘밤 빙황하고 있을까?

태너, 엔 엘든; 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왜 신전을 지을까요?

힝클리, 고든 비; 성도의 빛 1975년 1월호 14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37페이지

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맥스웰, 닐 에이;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외할아버지의 용기

허네스, 아스문드 에이치; 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45페이지

요 나

트베트네스, 존 에이; 성도의 빛 1974년 4월호 20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27페이지

요 셉

리언, 도로서; 세상이 모두 잠든 고요한 밤; 성도의 빛 1975년 12월호 15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46페이지

매투스, 로버트 제이; 마리아와 요셉; 성도의 빛 1975년 12월호 6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1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3절

코비, 존; 질의응답; 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29페이지; 뉴 이라 1974년 2월호 39페이지

용 기

영, 에스 딜위스; 총관리 역원의 이야기: 아들에게 주는 충고;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18페이지; 뉴 이라 1974년 6월호 44페이지

워런드, 칼라; 동굴; 성도의 빛 1975년 5월호 29페이지

이지; 엔사인 1971년 7월 65페이지

하노넨, 헬레나; 다른 아이보다 달라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42페이지

허네스, 아스문드 에이치; 외할아버지의 용기; 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45페이지

용 감 성

맥콩키, 브루스 알; 믿음의 싸움에 용감하라;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3페이지

용 서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성도의 빛 1975년 3월호 1페이지; "용서가 낳는 기적" 279-280페이지

차든, 랭크; 성탄절을 맞이한 즐거운 형제들; 성도의 빛 1975년 12월호 23페이지

우드럽, 월포드

속죄의 회생: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성도의 빛 1975년 3월호 2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중앙부

예언자와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75년 2월호 14페이지; 사도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뉴 이라 1974년 2월호

우루과이

남미의 교회; 성도의 빛 1975년 6월호 16페이지; 엔사인 1975년 2월호 19페이지

우리는 의로움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피베가, 렉스 더; 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3페이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계명

렉터, 하트만, 이세; 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19페이지, 뉴 이라 1974년 3월호 4페이지

우리의 귀한 가족

던, 로렌 시;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페이지

우리의 선교사 친구: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

성도의 빛 1975년 1월호 22페이지; 프렌드 1974년 5월호 32페이지

우림과 둠뎀

루드로우, 빅터 엘; 질의응답; 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4년 10월호 60페이지

머저비; 키드 에이치; 질의응답; 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61페이지

우 정

그록크너, 캐롤린; 마크의 조개 껍질;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24페이지; 프렌드 1974년 6월호 4페이지

우정 증진

에버하드, 어네스트; 복음을 전하는 방법: 단계적인 접근법;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4년 6월호 6페이지

워런드, 칼라

동굴;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1년 7월호 65페이지

위스틴, 조셉 비

간증에 맞을 내리고;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8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3페이지

웨너런드, 보우 지

전에도 사랑했었는데;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7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61페이지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김볼, 스펜서 더블류;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1페이지; 용서가 낳는 기적 279-80페이지

윈터 쿼터즈

산양: 아버지의 권고를 기억함;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4년 8월호 15페이지

윌리스, 하워드 이

신권이 내 생애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함;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4페이지; 뉴 이라 1974년 5월호 38페이지

윌머, 밀드레드 제이

마리아의 개종 이야기;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6페이지; 프렌드 1974년 5월호 6페이지

유대인의 전통

루드로우, 빅터 엘; 질의응답;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60페이지

유대의 옛 전설

사자와 울범 선생;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4페이지; 프렌드 1974년 4월호 36페이지

유산의 발견: 우리를 죽일 거야

비처, 모린 우세바하;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6페이지; 뉴 이라 1974년 9월호 36페이지

유행 음악

베스찬, 래리; 부모나 청소년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오늘날의 음악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37페이지

유희

크리스찬슨, 엘레이 엘; 사탄을 이기는 권세;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2페이지

태너, 엔 엘돈; 왜 내 아들이 오늘밤 방황하고 있을까?;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84페이지

음덕을 행하라

크레크로프트, 리차드 에이치;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1년 5월호 55페이지

음악

그린, 존 에이; "말일";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30페이지

무어, 조안 안드레, 무엇이 음악을 만드나?;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6페이지; 프렌드 1974년 3월호 14페이지

의로움

브라운, 빅터 엘;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6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3페이지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김볼, 스펜서 더블류;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7페이지

이사야

백콩키, 브르스 알;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열 가지 열쇠;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14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78페이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열 가지 열쇠

브르스 알 백콩키;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14페이지; 엔사인 1973년 10월호 78페이지

이 세상의 끝까지: 새로운 국제 조직에 관한 좌담회

브룩뱅크, 버나드 피;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5페이지; 엔사인 1974년 4월호 7페이지

이스라엘의 판사

태너, 엔 엘돈; 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6페이지

인가도 없는 곳에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5페이지; 뉴이라 1975년 5월호 46페이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롬니, 매리온 지;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38페이지

인내

피네가, 렉스 디; 우리는 의로움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4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43페이지

인생의 목적

김볼, 스펜서 더블류;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페이지; 뉴 이라 1974년 9월호 96페이지

일본: 해뜨는 나라에 비친 복음의 빛

와다나베, 간; 사카이 기요시; 야기누마 수이지; 헨더, 밀드레드 이; 블램, 그레이스;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5년 8월호 36페이지

-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13페이지; 처치 뉴스 1974년 10월 19일 7페이지
- 자기 수련
스태이플리, 델버트 엘; 좋은 습관은 훌륭한 성품을 낳는다;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20페이지
- “자녀를 가르침”
태너, 엔 엘돈;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표제지; 엔사인 1975년 1월호 63페이지
- 자유 의지
헤일즈, 로버트 디; 자유 의지의 문제;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7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43페이지
- 자유 의지의 문제
헤일즈, 로버트 디;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7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43페이지
- 자 제
레몬, 캐롤 에스; 해결책을 찾은 화니토;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1페이지; 프렌드 1974년 5월호 9페이지
- 장로라야만
맥콩키, 브르스 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5년 6월호 66페이지
- 재 능
아세이, 돈; 저음 가수 부머;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3페이지; 프렌드 1974년 8월호 19페이지
- 저음 가수 부머
아세이, 돈;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3페이지; 프렌드 1974년 8월호 19페이지
- 전세계의 교회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대관장단;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2페이지
- 절망하지 말라
벤슨, 에즈라 태프트;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42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65페이지
- 점 성 술
경전은 점성술, 복술, 영매, 마술, 요술, 강신술을 어떻게 보나?;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2페이지; 엔사인 1974년 3월호 26페이지
- 정 직
롬니, 매리온 지; 고결;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73페이지

스토운, 오 메스리; 정직하라;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2페이지; 프렌드 1975년 1월호 6페이지

존 경

고마즈, 애드니 와이;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애쉬튼, 웬들 제이; 늑대의 울음 소리;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1년 8월호 61페이지

좋은 습관은 훌륭한 성품을 낳는다.

스태이플리, 델버트 엘;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0페이지

주는 마음

대관장단; 전세계의 교회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대관장단의 성탄절 메시지;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4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2페이지

몬슨, 토마스 에스; 성탄절 정신;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1페이지; 뉴 이라 1974년 12월호 14페이지

백스트롬, 도이스; 열 두 가지 성탄절 선물;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1페이지; 엔사인 1974년 12월호 62페이지

주는 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김볼, 스펜서 더블류;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20페이지

주일학교

록키산의 주일학교;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16페이지; 프렌드 1974년 12월호 20페이지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영, 에스 딜위스;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5년 11월호 90페이지

죽은 후에는 무엇을

리차즈, 리그랜드;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52페이지

죽 음

리차즈, 리그랜드; 죽은 후에는 무엇을?;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4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52페이지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한 형제들

차든, 헝크;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3페이지

지 도 력

몬슨, 토마스 에스; 나의 위대한 인물의 영예 전당;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7페이지

태너, 엔 엘돈; 왜 내 아들이 오늘날 방황하고 있을까?;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35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84페이지

파이언스, 제이 토마스;대회를 우리 생애의 전환점으로 만들자;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40페이지;엔사인 1974년 11월호 63페이지

지역 대회

파이언스, 제이 토마스;대회를 우리 생애의 전환점으로 만들자;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40페이지;엔사인 1974년 11월호 63페이지

힐러, 래리;남미 지역 대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0페이지

지혜의 말씀

우리의 선교사 친구: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2페이지;프렌드 1974년 5월호 32페이지

진부판단

스토운, 오 레스리;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3페이지;엔사인 1974년 11월호 31페이지

질의응답

더햄, 지 호머;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8페이지;뉴이라 1974년 3월호 10페이지

라스무센, 엘리스 티;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9페이지;엔사인 1973년 10월호 76페이지

루드로우, 빅터 엘;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9페이지;엔사인 1973년 10월호 60페이지

머저비, 키드 에이치;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9페이지;엔사인 1973년 10월호 59페이지

머저비, 키드 에이치;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1페이지;엔사인 1973년 10월호 61페이지

버튼, 엘마 피;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9페이지;엔사인 1973년 10월호 76페이지

앤디슨;제이;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8페이지;뉴이라 1973년 1월호 34페이지

코비, 존;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9페이지;뉴이라 1974년 2월호 39페이지

ㄷ

차든, 헝크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한 형제들;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3페이지

청 소 년

백스찬, 래리;부모나 청소년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오늘날의 음악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18페이지;엔사인 1974년 4월호 37페이지

브라운, 빅터 엘;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성도

의 벗 1975년 7월호 36페이지;엔사인 1974년 11월호 90페이지

영, 에스 딜워스;"주의 종이 들겠나이다";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0페이지;엔사인 1974년 11월호 90페이지

영, 에스 딜워스;총관리 역원의 이야기:아들에게 주는 충고;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8페이지;뉴이라 1974년 6월호 44페이지

김불, 스펜서 더블류;다윗과 골리앗;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0페이지;엔사인 1974년 11월호 79페이지

김불, 스펜서 더블류;인생의 목적;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페이지;뉴이라 1974년 9월호 4페이지

초등학교

우리의 선교사 친구: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2페이지;프렌드 1974년 5월호 32페이지

총관리 역원의 이야기:아들에게 주는 충고

영, 에스 딜워스;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8페이지;뉴이라 1974년 6월호 44페이지

축 구

홀, 페오 디;더크의 새 축구공;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7페이지;프렌드 1974년 11월호 35페이지

치스맨, 폴 알

대서양 횡단: 새로운 사실;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6페이지;엔사인 1975년 1월호 50페이지

친 절

피미엔타, 에바 그레고리 드;행복의 나무, 제1부;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4페이지;프렌드 1975년 1월호 46페이지

피미엔타, 에바 그레고리 드;행복의 나무, 제2부;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13페이지;프렌드 1974년 2월호 13페이지

칠 레

남미의 교회;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8페이지;엔사인 1975년 2월호 19페이지

맥켄나, 이마 데;물몬경은 나에게 글 읽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13페이지;엔사인 1975년 2월호 40페이지

칠십인 제일 정원회 로렌 시 던 장로와의 접견

힐러, 래리;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5페이지

ㅋ

카우리, 매튜

하트슨, 레온 알;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9페이지

ㅎ

하나님을 알라

헌터, 하워드 더블류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3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9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벤슨, 에즈라 태프트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0페이지 ; 엔사인 1975년 5월호 63페이지

하노넨, 헬레나

다른 아이보다 달라지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7페이지 ; 엔사인 1974년 7월호 42페이지

하몬, 폴 엘

목자의 음성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표제지 ; 엔사인 1975년 1월호 62페이지

하트손, 레온 알(편집자)

매튜 카우리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29페이지 ; 사도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한국, 동양의 불사조

이호남 ; 한인상 ;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26페이지 ; 엔사인 1975년 8월호 44페이지

합 당 합

태너, 엔 엘돈 ; 범법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35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76페이지

해결책을 찾은 화니토

레몬, 케롤 에스 ;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21페이지 ; 프렌드 1974년 5월호 9페이지

해류와 가정의 영향력

킴볼, 스펜서 더블류 ;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110페이지

해의 왕국

코비, 존 ; 질의응답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29페이지 ; 뉴 이라 1974년 2월호 39페이지

행 복

벤슨, 에즈라 태프트 ; 절망하지 말라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42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65페이지

피미엔타, 에바 그레고리 드 ; 행복의 나무(제1부)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24페이지 ; 프렌드 1975년 1월호 46페이지

피미엔타, 에바 그레고리 드 ; 행복의 나무(제2부) ;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13페이지 ; 프렌드 1975년 2월호 13페이지

행복의 나무(제1부)

행복의 나무(제2부)

피미엔타, 에바 그레고리 드 ;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13페이지 ; 프렌드 1975년 2월호 13페이지

행스, 매리온 디

소년에게는 성인 남자가 필요합니다 ;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39페이지 ; 엔사인 1974년 5월호 76페이지

허베스, 아스문드 에이치

외할아버지의 용기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7페이지 ; 엔사인 1974년 7월호 45페이지

현납 기도문

와싱턴 신전 현납 기도문 ;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9페이지 ; 엔사인 1975년 2월호 79페이지

현 신

킴볼, 스펜서 더블류 ; 공의롭고 합당한 시온의 대업 ;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페이지 ; 엔사인 1974년 5월호 118페이지

헌터, 하워드 더블류

이 세상의 끝까지 : 새로운 국제 조직에 관한 좌담회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5페이지 ; 엔사인 1974년 4월호 7페이지

하나님을 알라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3페이지 ; 엔사인 1974년 11월호 96페이지

헤르난데스, 페트라 지 드

선교사의 어머니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4페이지

헤일즈, 로버트 디

자유 의지의 문제 ;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7페이지 ; 엔사인 1975년 5월호 43페이지

헨디, 밀드레드 이

와다나비, 간 ; 사카이 기요시 ; 야기누마, 수이지 ; 블랩, 그레이스 ; 일본 : 해 뜨는 나라에 비친 복음의 빛 ;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21페이지 ; 엔사인 1975년 8월호 12페이지

헨릭슨, 콜린

오스몬드 형제들의 사랑 : 음악을 통하여 ;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14페이지 ; 뉴 이라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허는 마음의 빛이다.

리언, 도로시 ;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22페이지 ; 프렌드 1974년 10월호 20페이지

현대의 예언자가 간증하는 속죄의 희생

성도의 벗 1973년 3월호 2페이지 ; 엔사인 1974년 4월호 중앙

홀, 페오 디

더크의 새 축구공 ; 성도의 벗 1975년 3월호 27페이지

지; 프렌드 1974년 10월호 35페이지
홀퀴, 마가렛 나이트
별의 축제;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26페이지; 프렌드 1975년 2월호 28페이지
홍콩, 동양의 진주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9페이지; 엔사인 1975년 8월호 51페이지
화 평
화평이 가져다 주는 축복; 리차즈, 플랭크린 더;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5페이지
화평이 가져다 주는 축복
리차즈, 프랭크린 더;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9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05페이지
회 개
맥스웰, 닐 에이; 왜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4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12페이지
킴블, 스펜서 더블류;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7페이지
히그비, 케네스 엘; 뒤의 일을 잊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2년 9월호 84페이지
회 복
영, 에스 딜위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30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0페이지
혼 계
실, 스테럴링 더블류; 금식의 법;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5페이지; 엔사인 1974년 7월호 9페이지

태너, 엔 엘돈; “자녀를 가르침”; 성도의 벗 1975년 7월호 표제지; 엔사인 1975년 1월호 63페이지
훌륭한 아들을 얻은 나의 어머니
고마즈, 애드니 와이; 성도의 벗 1975년 11월호 18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고마즈, 애드니 와이;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100페이지
희랍-로마가 성지에 미친 영향
리이언, 티 에드가; 성도의 벗 1975년 9월호 8페이지; 엔사인 1974년 9월호 20페이지
희 생
렉터, 하트만, 이세, 물몬이즘의 바탕;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3페이지; 엔사인 1975년 5월호 55페이지
패커, 보이드 케이;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성도의 벗 1975년 4월호 1페이지; 엔사인 1975년 11월호 87페이지
헤르난데스, 페트라 지; 선교사의 어머니; 성도의 벗 1975년 12월호 24페이지
히그비, 케네스 엘
뒤의 일을 잊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29페이지; 엔사인 1972년 9월호 84페이지
힐러, 래리
남미 지역 대회;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10페이지
힝클리, 고든 비
산 위에 있는 동배; 성도의 벗 1975년 6월호 37페이지; 엔사인 1974년 11월호 98페이지
왜 신전을 지을까요?; 성도의 벗 1975년 1월호 14페이지; 엔사인 1974년 8월호 37페이지



J. HARSTON